



# 개교 90주년 기념식

## 공로·장기근속 표창

개교 90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10시30분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송석구총장, 오복원 이사장, 황명수총동장회장을 비롯 내외귀빈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례를 시작으로 △연혁보고 △개교기념표창장 및 부상 수여 △총장기념사 △이사장지사 △총동장회장축사 △해외자매대학총장축사 △사홍서원등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90주년기념 행사 관련과 학술교류는의차 방문한 11개 해외자매대학 총장의 참석으로 한층 자리가 빛날 것으로 보인다.

개교기념 표창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급 공로상 (서울 캠퍼스) △이정학(연구교류처 연구부) △김윤길(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강형석(기획조정실 기획과) △박래호(총무처 경리과) (경주 캠퍼스) △김근득(학생처 학생과) △최혜방(사무처 경리과) △최영택(병원 원무과) △신병직(포항병원 원무과)
- ◇2급 공로상 △임원경(관리처 관제과) △이

미(정각원) △정향란(박물관) △임수진(동국한방병원 서무과)

◇20년 근속 (서울 캠퍼스) △김인덕(불교학) △이종찬(국문학) △홍기삼(국문학) △허천택(영문학) △김희배(철학) △조희영(경영학) △박교수(산림자원학) △김장수(역사교육) △한명희(교육학) △소승환(미술학) △차준환(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 △하정윤(관리처 관제과) △차선구(사무처 경리과) △이창진(관리처 관제과) △김희철(총무처 총무과) △정용수(총무처 총무과) △신상진(학생처) (경주 캠퍼스) △장종식(고교미술사학) △설영기(국제경제학)

◇10년 근속 (서울캠퍼스) △이병신(산학) △김태준(국문학) △이형기(국문학) △양문술(철학) △송재준(국민윤리학과) △방현수(수학) △송희자(수학) △김일중(무역학) △차수현(경영학) △이종욱(정보관리학) △이진구(전자공학) △조형제(컴퓨터 공학) △하성철(전기공학) △박준규(교육학) △유시규(수학교육) △조영석(체육교육) △임 식(체육교육) △채환국(체육교육) △오원배(미술학) △이영관(관리처 관제과) △김종애(정

각원) △김현영(총무처 경리과) △하미애(총무처 비상계획과) △김미숙(공과대학 교학과) △박상관(연구교류처 연구부) △송종수(관리처 관제과) △김대욱(직업 노동조합)

△강귀원(전자계산소 전산과) △오성근(전자계산소 전산과) △김시걸(총무처 총무과) △김철조(총무처 총무과) △김승국(총무처 총무과) △김영철(총무처 총무과) △김종백(동국한방병원 서무과) △한경란(중앙도서관 열람과) (경주캠퍼스) △이봉춘(불교학) △이석장(영문학) △최종재(중문학) △노평희(일문학) △박정병(국사학) △손연결(미술학) △황상주(미술학) △이정일(생물학) △이갑득(화학) △김태호(조경학) △이갑득(전자계산학) △함정수(전자계산학) △박동연(가정교육) △김진정(법학) △김희오(국제관계학) △이영기(경제학) △김영국(관광경영학) △서태양(관광경영학) △김강성(한의학) △김태용(사무처 총무과) △권동수(사무처 관제과) △이철희(사무처 관제과) △김한곤(사무처 총무과) △김승우(사무처 총무과) △김창근(사무처 총무과) △구태희(의료원 총무과) △박경희(교무처 학적과) △서종욱(학생처 장학과) △정향란(박물관) △형영관(보건소)

# 특별학술연구비 지급

김정근·이항우·석원경 교수

96학년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선정됐다.

대상자는 △김정근(영어영문학) = 폴리지의 문학과 사상(주논) △이항우(경찰행정학) =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석원경(화학) = Preparation of Ruthenium-Containing Polycarbonate Films and the Chemistry of Ruthenium in Polycarbonate이다.

제13회째 실시하고 있는 특별학술연구비 지급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전공분야 학술발전에 기여한자를 선정하여 연구업적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교내 연구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20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추천은 인문과학분야 8명(서울 6명, 경주 2명), 사회과학분야(서울 4명, 경주 3명), 자연과학분야 9명(서울 7명, 경주 2명) 등 총 24명이 추천의 회를 받거나 신청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대상자는 3차에 걸친 연구업적 및 논문에 대한 내·외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한편, 시상 및 연구비 지급은 개교 9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8일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있으며, 특별학술연구 수상자에게는 각각 기념패와 연구비 3백만원이 지급된다.

# 야구부 백호기 출전

## 농구부도 전국 연맹전

본교 야구부(감독=황동훈)가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동대문구장에서 열리는 백호기 전국총합야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경기에서, 부진승으로 1차전을 통과한 야구부는 경희대 대 사무전의 승자와 예선전을 갖는다.

조경진 체육부 계장은 "부상선수들이 완쾌되고 있으나 중간고사관계로 전체훈련을 갖지 못했다"며 "3, 4일 전체훈련을 실시해 팀력을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농구부(감독=김성오)도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96 전국 대학농구 연맹전'에 출전한다.

중앙, 건국, 명지대와 함께 B조에 속한 본교는 올레 스카우트한 송태영의 8명의 신인생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5일=명지-동국(오후 2시) △6일=중앙-동국(오후 5시) △8일=동국-건국(오후 6시30분)

#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 신 동북아 질서 토론

북한의 변화와 신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96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11일 안보연구소 주최로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권오윤(북한학) 본교 교수의 사회로 3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북한체제의 개혁전망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과 신동북아질서 △4자회담

과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연구자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고유환(북한학), 유광진(정치외교학), 강성윤(북한학)등 본교 교수들이 각각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가한다. 한편 이 회의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참관 자격이 주어진다.

# 중앙사무 조직 개편

## 정기이사회서 감사 3인 선정도

제1백39회 이사회가 임원선임,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개정, 인사제정과 기채승인을 안건으로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이번에 결의된 안건 중 임원선임건은 96년6월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임기 2년) 3인 후임선정에 대한 논의로 기존에 감사직을 맡고 있던 전연성, 김계호, 이기화 감사들 중 전연성, 이기화 감사는 재임하게 됐으며, 김계호 감사 후임으로는 김경희 스님이 선임됐다.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개정에서는 교무처에 입학과, 관리처에 시설과 신설, 이에따른 중앙사무조직 개편 등이 의결됐다.

이와관련해 법인사무처(처장=송재운·국민윤리학과)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된 편입학이나 특례입학 등 임시모집전형의 다양화, 학술문화관 건립과 제3캠퍼스 조성으로 인해 실무기획·관리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사무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부속 경주 유치원 설립에 대한 결의도 있었다.

끝으로 일산 제3캠퍼스 부지매입자금 13억을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받은 기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 '왕오천축국전' 연구 발표

## 한·중 학술교류 증진 기대

해초의 '왕오천축국전'해독에 관한 연구발표회가 오는 7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과 대학원 불교학과와 공동 주최로 학술문화관(K213)에서 열린다.

발표자는 중국 항주대학 역사학과 황시강 교수로 특역은 강문호(사학)교수가 맡는다.

발표를 맡게된 황교수는 동서문화에 조예가 깊고 동서문화 교류 부분에 일조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발표회에서 소개를 맡은 조영록(사학)교수는 "한중이 국교관계를 맺은 지가 몇년이 지난 지금이 연구발표회는 중국과의 학술문화교류에 큰 뒷받침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시강 교수는 오는 9일 사범대 소강당에서 사학, 역사교육과, 불교대학원 합동 초청 강연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 직원 인사이동

학교당국은 지난달 직원인사이동에 이어 다시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이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주 캠퍼스) ◇교무위원급 인사 △동국의료원장=조재호 △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장=정팔현(이상 4월1일자) ◇직원인사 △한의학연구소장=박한국 △의학연구소장=김두희(이상 4월25일자) △교육매체실=정현수 △과학관=박영규, 신영배(이상 3월20일자) △신교육제도운영실무팀=박두

관(3월20일자), 신익홍, 박승필(이상 3월27일자)

## 동국요람 영문판 발행

연구교류처(처장=이기중·국문학)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동국요람을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요람'을 오늘(6일) 발행한다. 이에 학술교류부 한 관계자는 "이 책자는 주로 국내·외 홍보용으로 제작되었으나 학과 커리큘럼이 바뀌어 학술교류부 한 관계자는 "이 책자는 주로 국내·외 홍보용으로 제작되었으나 학과 커리큘럼이 바뀌어"

# 보리수

## 최고의 길

최고는 아름답다. 그것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도전해 볼 만한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은 작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만일 세계무대에 나아가 예술이든 과학이든 문학이든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 하자. 그 노력과 결과에 대해, 우리는 경의를 보내야하고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인들로서는 생각만으로 가슴 설레이는 꿈이 있다. 국내 아니 세계 최고의 대학, 일류의 교수와 학생, 저마다 바로 우리 대학이 그렇게 되기를 꿈으로 그려보기도 한다. 어디 대학만일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일류의 국가였으면 좋겠다. 만일 민주화가 인간을 위한 최고·최선의 길이라면 그 반면에서, 또 삶의 질을 가장 높게 보장할 수 있는 복지나 혹은 도덕성에 있어서 이 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되기를 모두가 희망한다.

최고에 대한 꿈은 나쁘지 않다. 향진을 방황과 목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런 꿈에 고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무한경쟁의 논리 속에서 '내가 일류면 나라가 일류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식의 구호가 동경한지는 이미 오래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언처럼 들려 차라리 비장 감마저 감돈다.

최고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이쯤에서 최고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구현의

방법론에 대해 한번쯤 사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이든 허상이든, 그동안 최고와 일류를 향한 줄달음은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낳아왔다. 그 과정 속에서의 졸속과 부실 그리고 결과로서 드러난 허위와 패배감 말고도, 최고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폐해는 광범하다. 인간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삶의 의미를 별질시키는가 하면, 다양한 사고와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앗아간 것도 그중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길이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돌아야 한다.

현실과 유리된 언어의 유희라고 비판될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그 길은 중도(中道)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불타의 가르침대로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수학적 중점'이 아닌 '가장 바른 중점'한 길인 것이다.

현실적 요구에 의해 최고를 지향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하게 서둘 일 이 아니다. 죽음의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또한 나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중도로 가는 길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 삶의 가치나 사고도 폭넓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인생을 관조하는 여유도 지녀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길, 그것이야말로 곧 최고의 길이 아닐까?

이 봉 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 직원노조 노동절 기념행사

## 말은바 임무 최선 다짐

노동조합 창립 8주년 및 노동절 106주년 기념식이 지난 1일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김윤길 노조위원장 장과 송석구(철학)총장을 비롯한 직원 1백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다.

기념식은 사회자의 개회사로 시작해 △노동의례 △노조위원장 인사 △총장 축사 및 격려금 전달 △처·과장회장 격려사 △기타보고사항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로비에에서 기념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윤길 직원노조위원장은 "대학이라는 특수공간에서 직원들이 맡은 임무와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며 "자기일에 최선을 다

하는 직원들의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을 뒷받침하는데도 일조할 것"을 당부했다.

# 교수동정

◇김경재(식물자원학)는 지난 4월 29일부로 '한국과학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 ◇배상현(한문학), 김필수(철학) = 오늘(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정주시 증원 승학연구회를 학술발표자 방문.

# 96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 ◇ '96년도 전역자
  - ◇ '90.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 ◇ '88.12.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간부
3. 교육시간: 8시간
4. 교육일정(대학별)

	5.20(월)	5.21(화)	5.22(수)	5.23(목)
공과대		불교대 예술대	이과대 이부대	문과대 사과대
		경상대 사범대 법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대학원 교직원

5. 교육장소: 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제1905부대)
  - ◇ 구과발전철역에서 송추방향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관광버스 대기 (06:20~07:00까지 운행)
  - ◇ 시내버스: 구과발전철역에서 156번(북한산선→송추)
  - ※ 156번중에 북한산선경유 송추행이 아닌 삼천리광명, 일영경유 송추행탑승금지
6. 복장: 예비군복(준부복, 전투복, 전투화, 고무편, 허리띠)
7. 휴대품: 신분증, 주민등록증지참(본실자: 학생증, 면허증, 예비군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8. 특별(유의)감조사항
  - ①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위험성 엄격통제)
  - ② 전투복, 전투화, 전투화, 고무편, 허리띠중 1가지라도 미 착용자 절대 입소불가
  - ③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거나,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해 교육일정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해명방안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군 신분 재학생은 예비군 연대본부에 수시로 문의바랍니다.
  - ④ 예당 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경우는 사전에 예비군 본부로 신고바랍니다.

1996.5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장

# 공 고

## 제 목: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6년도 8월 졸업예정자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다 음

1. 대상: '96.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 1) 공통: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자.
  - 2) 사범계: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상응 과목 이수자.
  - 3) 비사범계
    - ①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 ②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상응과목 이수자로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 3. 접수기간: '96.5.7(화)~ 5.10(금)
  -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소정양식)
  - 5.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졸업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시험검정 자격이 소멸하니 대상자는 유의 바람.

사 범 대 학 장

# 수계 신청 안내

부처님의 밝은 혜명(혜명)을 있고 동국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 가족을 수계식(법회)에 초대합니다.

계를 받는 것은 첫째 佛子가 되는 것이며, 둘째 불보살님전에 萬德의 근원을 심는 것이며, 셋째 불명의 인연으로 無明의 업장을 소멸하고 밝은 지혜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무량백백의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계를 받아야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며 계는 한번 받기만하면 그 受戒된 선공공덕이 영원히 영속한다고 하였듯이 계를 받음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선공공덕과 지혜의 등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계신청서를 정각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일시: 1996년 5월14일(火) 오후4시  
△수계장소: 정각원 대법당  
△수 계 사: 오복원 권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접 수 처: 정각원 사무실  
☎ 260-3016, FAX: 268-2314

## 정 각 원 장

## 1996년도 교육학 특강

1. 내용: 임용고시 교육학 이론
2. 강사: 박내영(노랑진 학교 교시학원 전임강사)
3. 일시: 5월16일~8월17일, 늦은 6시(매주 목·금 4시간씩 총 96시간)
4. 수강료(교재비 포함): 사대생(130,000원) 비사대생(150,000원)
5. 접수기간: 5월6일~15일(강의 도중 접수 불가)
6. 접수처: 동국대 학림관 지하 사범대 학생회실(전화: 260-3661)

민족자주교육실현  
제28대 사범대학생회





# 세계의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 동국 사랑을 모태로

## 개교 90 주년 이사장 총장 치사 기념사

# 통일 한국을 이루는 초석 되고자 전통과 현재·본질과 현상의 조화로

전에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아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각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 이래 한국현대사의 온갖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국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종단과 역대이사장, 역대 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어린 봉사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온 것입니다. 이는 실로 동국인 모두의 의지와 애국심의 승리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목표로 두고 교육개혁과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계획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세계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해답을 무엇보다 불교정신의 올바른 구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대학이 가장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국대학교야말로 16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주도해 온 가장 전통적 종교인 불교를 모태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해 온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며 곧 세계적인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국은 개교 일백주년을 앞두고 분교발전에 지대한 원력과 진척적 기상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음은 우리 동국의 중흥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캠퍼스와 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사업이야말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남북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적 사업이라고 확신하며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구성원의 진지한 노력 못지 않게 인화와 결속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

따라서 개교 100주년을 앞둔 우리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 재단, 대학은 물론 동문, 재학생 모두가 동국발전의 주체요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상부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정성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헌신적으로 동참할 때 소기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단으로서도 동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가능한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국발전을 위한 한 길을 걸으면서 30년, 20년, 10년의 장기 근속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과 특별학술연구 및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치하를 보내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장 오복늬 합장

존경하는 동국학원 오복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님들,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종단의 대덕 큰스님들, 황병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 그리고 역대 총장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06년 이땅에 처음 동국의 기상을 펼치기 시작한 이래 어언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담했던 일제의 억압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가꾸려는 불교선각자들의 값진 노력은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90주년을 새로운 동국승리의 전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이대물로기의 대립이 종언을 고하고,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는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은 건전한 인간성상의 황폐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의 뒤안길에 가려진 도덕성상실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면, 미래의 국제경쟁은 문화적 대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가 자신의 건전한 문화를 국력의 바탕으로 삼는가에 따라 국가간의 우열이 나누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문화의 저변에는 불교문화가 잠재해 있습니다. 불교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지배하여 온 가장 위대한 가치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 영광의 그림자에만 안주할 수는 없습니

다. 오히려 그 내면의 빛을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과제와 함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통일한국을 이루는 초석 되려고 합니다. 서라벌의 기상을 등에 업고, 드넓은 만주평원을 달리는 기상으로 우리의 가진 바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동국대학교는 학부제실시, 제3캠퍼스 건립계획, 불교병원 설립계획 등을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학다운 건설로 교육혁신의 한 계기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로 응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합된 의지입니다.

나약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행적을 통해 우리의 꿈을 펼쳐가야 합니다. 신라때 총담스님은 안민가라는 노래를 통해서 "백성은 백성에게

임금은 임금답게 할지면 나라는 태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국을 구성하는 여러주체들이 각자의 위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보장되는 법입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한 이래 동국발전이라는 한가지 목표에 매달려 왔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려면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교육개발화시대에서는 특성화된 대학이 아니면,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학을 비롯한 동양학의 본산으로서 긍지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공학 등 첨단과학분야에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걸을 조화롭게 보충 내실있게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전통과 현재의 조화, 본질과 현상의 어울림을 통해 동국승리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전에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나오자가 되느냐, 아니면 미래를 응시하는 개혁자가 되느냐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전적 안목으로 내일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동국21세기에 우리의 노력이 자랑스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동국과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도 부처님의 크신 자비원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송석구 합장



다. 오히려 그 내면의 빛을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과제와 함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통일한국을 이루는 초석 되려고 합니다. 서라벌의 기상을 등에 업고, 드넓은 만주평원을 달리는 기상으로 우리의 가진 바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동국대학교는 학부제실시, 제3캠퍼스 건립계획, 불교병원 설립계획 등을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학다운 건설로 교육혁신의 한 계기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로 응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합된 의지입니다.

나약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행적을 통해 우리의 꿈을 펼쳐가야 합니다. 신라때 총담스님은 안민가라는 노래를 통해서 "백성은 백성에게

임금은 임금답게 할지면 나라는 태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국을 구성하는 여러주체들이 각자의 위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보장되는 법입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한 이래 동국발전이라는 한가지 목표에 매달려 왔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려면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교육개발화시대에서는 특성화된 대학이 아니면,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학을 비롯한 동양학의 본산으로서 긍지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공학 등 첨단과학분야에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걸을 조화롭게 보충 내실있게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전통과 현재의 조화, 본질과 현상의 어울림을 통해 동국승리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전에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나오자가 되느냐, 아니면 미래를 응시하는 개혁자가 되느냐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전적 안목으로 내일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동국21세기에 우리의 노력이 자랑스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동국과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도 부처님의 크신 자비원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송석구 합장

- ▶ 당장 시급한 도서관부터 지어라! 분관이랑-수영장 부지에, 이젠 무효야.
- ▶ 인문계는 제4캠퍼스로, 아니 그럼 제1캠퍼스는 무엇만 남지?
- ▶ 말도 안된다. 흠!
- ▶ 적극 환영한다.
- ▶ 경주 캠퍼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 ▶ 향 숫자만 늘릴것이 아니라 지금의 향이 맛 있는지, 없는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
- ▶ 역시 한국인은 삼세번이야
- ▶ 서울대 농대도 관악으로 오는 데 동국대 농대 일산이 왜 말이나?
- ▶ 96학번 동지들 무섭다
- ▶ 학우들이 반대하면 뭐하니까? 벌써 세우고 있는건 아닌지요.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국의 앞날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 무조건적인 반대는 싫다. 대안없는 행동은 더 싫다.
- ▶ 제3캠퍼스가 갖는 3가지 허구성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gress@naver.com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단과대, 학과별의 지속적인 부정문제 등 동국의 내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노력보다는 '동국걸모습알리기'에 더욱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당국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다.

홍보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홍보가 경쟁력의 최우선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의 바탕은 내적 충실임을 알아야 한다. 내적 충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쟁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동국은 동국내의 여러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이상 둔감해서는 안된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경쟁적인 환경속에서 민족사회의 명문으로서의 동국이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를 다룬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유승균 (경상대 무역학과)

### 제3캠퍼스

어이구 우리 언니 동골 휘네. 우리 언니는 동국대기 서울에 있는지 알고 보겠다!  
근데,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대외 의사문인 가?  
조금더 만들어 제10캠퍼스도 지어 봅시다.

일산이 말다하되 대한민국 땅이로다 지하철 타고 버스타면 못가는 일 없잖은가? 그래도 나는야 서울캠퍼스가 좋아!  
일산! 다 좋다구요. 근데 왜 가만 있는 경주캠퍼스 흥분하게 하나구요.

70년대 서울캠퍼스의 발전을 저해했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경주캠퍼 건설이었다.  
학생들과 협의없이 터프턴 당국의 책사령이 때문.  
3. 제3캠퍼스 재정확보방안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될게 변하기 때문.

### 90주년 행사, 내적충실을 기하길

베스트셀러에 이르는 길은 두가지 있다. 첫번째 길은 대중화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계속적인 홍보로 독자들에게 그 책의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길은 책의 수준과 내용이 상관없이 책을 다룬 베스트셀러로서 만드는 길이다. 또 하나의 길은 독자들의 입을 통하여 베스트셀

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길은 책의 내용과 수련, 평판과 비판에 따르는 모든 칭찬과 함담을 건디내이고 스스로 베스트셀러에 이르는 길이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5월들어 개교 90주년 행사준비로 동국인같이 모두 시끄럽다. 교직원들은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고 학생들은 행사준비에 그나마 방해가 안

되려고 정신이 없다. 각종 음악회와 전시회를 통해서 동국의 이미지를 넓게 넓게 알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정으로 서 학술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불상사나 온 것들은 한국으로 밀어 넣고, 산뜻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동국이다. 그렇지만 지금 동국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 재단전입금 문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과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오류의 연속, 자치공간 확보를 위한

### 목errick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알립니다**  
전자 노망들 수학(졸업, 학술조사)여행간다. 5/2~5/5  
-왕창 노망 80's학번

**축하합니다**  
현두야! 생일 축하한다. 임마!  
-현두의 잘나가는 친구현두(?)

그리고...그림의 영화형, 유나, 재범, 미란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그림사

연선 선배, 이사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새 안식처로 옮기신거 축하드려요. 집들이(?)는 꼭 잘개요. 연선 호텔(연선장에서 연선호텔로)개업 축하!  
-86학번 영문과 신순옥 팀

May-Day(5.1)에 태어난 명호 오빠와 랑스 탄신일(5.5)에 생일을 맞은 오우 오빠, 생일 축하하러부려요.  
-국문과 사회과학회화 어여쁜 쌍이

매명호, 박우후선배 왜 태어났노? 탄신 축하  
-국문96 김대성

동백련 생일 축하한다. 호준, 재경, 석근, 태길, Club에서 8일 생일 축하연이 열립니다. 남은기간 열심히 공부해 졸업하자!

독문과의 선비, 명렬의 오빠의

**알립니다**  
Vocal백상에서 Key-Board치실 문을 찾습니다. '96학번 새내기 만해광장 지하 연습실로 오십시오.  
-백상

황보!빨리 연락해!  
-카프리 시몬사람

정보관리과 주간 3학년 5월 중순에 수학여행 갑니다. 정보과 여러분, 미니마나 동참해주셔요!!(기쁜조항상대기중)

4월26일 동국관M207재무관리 시험 시간에 재무관리교재를 습득하신분은 연락하십시오.  
-경영3김영성 015-354-5266

드디어 성사! 전주해성VS재전주여자고등학교 연합동문회 금요일, 5시 만해광장

**열심히 합시다**  
19th선배님들 "제15회 웅대전"을 위해 합세해요. 저희도 열심히 일할게요.  
-백상응원단 20th일동

**그리고...**  
노동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

### 동/악/광/장

각합시다.  
-예비노동자

토토 축구대회 우승을 기원하며  
-正

사회학과 조교 현진욱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사회94일동 현진욱, 진욱80

바람소리 7기 삼진이의 명복을 바람소리 온가족 머리숙여 빌니다.  
-바람소리 일동

일본선 진인(4일), 미경(7일)생일 축하해.  
-이쁜이 동철

정규선배 생일 축하드려요. 생도 열심히 하시고 파생활동 열심히!  
-김정미

살라이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중문과 노경

동독회 18기 가장된 수진이, 부가장진수 축하한다. 영진이두 화이팅!! 열심히 하자.  
-동독의 이쁜 선배가

똥강인 인숙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부디 男子친구를 선물로  
-chols and Lee

선진! 생일 축하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X세대

내사방 양숙이의 19번째 생일 축하한다.  
-오빠

똥강지만 선하!영주!성호!준호!주광선배 생일 축하해요.

### 온방골

새내기들 고고!아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기 바란다.  
-소아 대방

수습들이 첫 활동비를 받았습니. 축하해 주세요.  
-수습일동

**알립니다**  
대구 덕일&해화동문 인이어 5월중 헌번 보겠습니다. 그날까지 무사하길...  
-H-J

가정교육 3학년 이쁜이.똥나들이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

유은이와 광욱이의 방들이 5월 8일날 합니다. 불러오세요.  
-D동 102호

현대 연합동문회 5월9일날 A320 오후 5시에 합니다.  
-회장

**열심히 합시다**  
희정, 효정, 도희야 잘 살아, fighting.  
-지혜

해방을 향한 힘찬 몸짓으로 진군하자. 그대 중앙 몸짓패 '해방몸짓'이어!  
-중문과 야구부의 2번의 콜드패. 하지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영속, 선영, 소연 3자매가 있으니가.  
-삼자매

똥강이! 편안히 쉬었다가 와 대신 더 멋진 너의 모습을 기대할게.  
-은영

준영아! Birthday Party똥해서 어찌?  
-숙이와 윤

4월29일 경·송 동문회에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연합동문 양희장

◇ 1백6주년 노동절 맞이 민노총기념대회

# 학생·시민·정계인사도 함께한 축제 한마당

## 노사관계법개정·구속노동자사면·임금투쟁승리 결의

구름 낀 날씨로 흐려있는 보라매 공원 '주 40시간 노동 정취하자' '위장휴업 즉시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이곳이 노동절 기념 행사장임을 먼저 알린다.

제1백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서울 보라매 공원과 각 권역별로 기념대회를 열었다.

작년 11월에 민주노총이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인데다가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를 계기로 노동법 개정방향에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시점에서 치뤄져 그 어느때보다 큰 의미를 지닌 이번 대회에는 △96일단투 승리 △노동법 개정 및 민주노총 합법성 쟁점 △사회개혁 정책기 투쟁과제로 내걸렸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그 가족들, 학생, 시민들 3만여명이 참여한 이날 보라매 공원은 잔디밭에 둘러 앉아 가족과 함께 김밥을 먹는 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띠었다.

이 휴일날 봄나들이를 온듯한 풍경을 자아냈다. 특히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머리머리를 둘러 묶은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풍경을 지켜보던 한 참가자는 "노동절은 '투쟁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공휴일로 지정해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약간은 흐린 날씨로 차분해 있던 보라매 공원은 대회가 시작되면서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참한 막대풍선들의 소리와 기념포스터, 티셔츠자켓들이 활기찬 표정, 대화장 위로는 비행선까지 띄워 기념식의 열기는 고조됐다.

"전세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은 임금체불, 폭언, 폭행, 의료문제 비혜택등의 처절함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정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시작하는 산재노동자들의 피해사례들을 전 시해 놓은 거리 선전물은 노동운동의 갈

길이 아직 멀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권영길 위원장이 신노사관계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노사관계 위원회' 민주노총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대회를 남쪽한 후 국민의회의 부총재와 민주당 총재 등 정계인사의 축사가 뒤이었다.

복소리와 함께 1백50명으로 구성된 문

선대의 상징의식이 시작되면서 대회장 세 군데에 설치된 '속불화로'를 점화한 가운데 민주노총을 상징하는 마크 세계가 등장, 전진과 안정된 조직을 의미하는 삼각 깃발을 이루며 의식을 하는 동안 민주노총 깃발을 세우는 것으로 기념식은 절정에 다다랐다. 자욱한 속 연기로 덮여 있던 대



◇ 3만여명이 참여한 1백6주년 노동절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참여와투쟁'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좌는 기념대회, 우는 가두행진의 모습.



### 노동절 의의와 유래

#### 인간·노동해방 목표 시카고 노조서 시작

"나는 지금은 비록 임금을 받아 먹고 사는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노예같은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이 노예의 주인이 되어 남을 부리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것은 세계 노동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긴 '메이마켓사건'의 노동운동 지도자인 파슨스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양지연 기자)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8시간 노동쟁취 투쟁으로 본격화된 노동운동은 1889년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투쟁결의문을 확산시켜 1890년 5월1일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관까지 끊임없는 투쟁으로 지속적 전개를 보여왔다.

해방이후 이승만정권 하에서 미군정과 대한노총의 폭력적인 정권과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 검거됐으며 과거 5월1일이었던 노동절을 대한노총의 결성일인 3월10일로 바꿔 한국의 노동절로 축하기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머리속에서 메이데이라는 말조차 아예 지워버림으로서 이렇듯 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에 순종하는 일 잘하고 말 잘듣는 기계로, 의식없는 노동자로 만들어 남한의 민주주의적 노동운동에 암흑시대를 예고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본은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5·1 노동절의 전통회복을 선언했다.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은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애써온 선배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새기는 기념의 날, 당면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자리잡고 있다.

96년 제106주년 노동절을 맞아 우리 노동운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큰 의의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 창립후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이기 때문에 96년 투쟁의 의미를 공유하고 나아가 96투쟁 승리를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둘째 임금가이드 라인 분석에 5월말~6월초 전국 노동자의 힘찬 총력투쟁의 장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투쟁과제인 노동약법 철폐(복수노조 인정, 제3차 개입금지 조항철폐, 직권 및 일반중재 철폐등)와 3대 사회개혁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간다. 넷째 각 단위노조의 사회개혁 고심권 위임을 총화하여 노동법 개정과 투쟁승리를 다짐한다등으로 우리 모두에게 메이데이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송신영 기자)

### 동약로

#### 사랑주

"아 마저, 우리의 학우를 돕기 위해선 많이 마셔야 해"

지난 3일 있었던 자연대 학생회의 일일주점에서 한 학우가 잔을 높이 들었다.

지금 학생회관은 '급성인파선 백혈병'으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야간강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각 단대에선 각종 이벤트 사업과 곧 있을 대동제의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연대가 선두주자로 나섰다.

2천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일일주점에 들어서니 자리는 가득 메워져 있었고, 약자지킬만한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선배를 따라온 한 새내기 "김윤호 형도 돕고 동아리 단합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하며 싱글벙글이다.

사람들 속 '사랑의 메세지'라는 하트 모양의 벽보에는 '윤호선배님 힘내세요' 등의 정성어린 글씨가 뿔뿔히 적혀 있었다.

친구의 활박(?)에 티켓을 사고 말았다 한 학우는 "이런 슬립분위기와 김윤호학우 돕기라는 말이 어울릴까"



라며 어리둥절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여기서 마시니 술맛도 좋네요"라며 웃기도 한다.

요즘 중간고사로 생강들은 매우 조용하고 도서관은 지리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하지만 "오늘 시험인데도 시험까지 빠

지고 이곳에서 고생하는 집부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연대 식구들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학우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이다.

한편, 오는 9일 '사랑의 Open주점'이라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아·중, '꺼져가는 한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라는 선전자 보가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누군가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늦은밤 도서관에서 "내일은 전공시험이야"라고 푸념을 하는 학생들, 사랑의 일일주점에서 "소중한 생명을 위해"라며 술잔을 기울이는 학생들, 동국울타리의 정이런 무엇일까? 어느새 밤 하늘엔 별이 저물고 있었다.

(신용우 기자)

### 농촌실태와 농활의 의미

## 늘어만가는 부채로 주름진 얼굴엔 수심가득 전문농활·학점제 시도하나 농촌현실 파악엔 역부족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인수(제천군 원바리, 32)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작년 중부지방을 강타한 동풍수가 재전까지 미치지 못한지,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채는 어떻게 갚을까...

그러나 도시로 떠나간 동료들을 떠올리며 한숨만 쉬는 그에게도 조그만 희망이 있었다.

"농활이요? 큰 힘이 됩니다. 일손은 딸리고 해야할 일은 많고... 어색한 손놀림으로 일하면서 땅에 젖은 학생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제천지역에서 실시한 봄농활에서 본교 2백80여명 학생들은 노동의 참의미와 농촌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득했다. 고추심기, 농도정리, 모판나르기 등 손에 익지 않은 일에 학생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러나 농민계몽운동에서 손수봉사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활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학교당 농활참여수가 대부분 1백여명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속에 몇몇 대학은 봉사활동 육성인을 발표했으며, 작년엔 한양대가 올레엔 일관대가 봉사학점제를 도입, 각각 1천여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농촌을 포함한 사회각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서울대와 본교의 경우 작년 9월 수해농민을 돕기위해 현지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시도했다. 신선한 기획역시 학생들사이에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전문농활이 그 예이다.

본교의 경우, 법률의 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의 경우 법적 소송사건과 땅문제 등의 민원을 받아 농민들사이에서 신뢰감있는 농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컴퓨터 전문농활,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풍물교실, 백일장 역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농활의 다채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농민들은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다. 재전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본교 동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활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담담히 피력했다.

"글쎄요... 학점제 실시후에 대다수 학생들일 몰린다는 것은 쓸쓸한 여운을 남겨 주네요. 단기간 농활은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학생들이 어느정도 느낄 수 있을지 걱정 되기도 하고... 농촌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저 농촌을 공경하고 인식좋은 곳으로만 느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실 WTO체제 출범으로 농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고 농업축산물 가격으로 한 '신농경'에 따른 폐해가 가시화

되면서 폐농한 농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귤, 양파, 마늘, 사철과채류등 주요작목의 가격폭락이 믿었던 돼지, 닭 등 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이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쳐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민들의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 기반인 쌀값, 입담배 값의 동결과 수매량 축소로 인한 자본의 농지 침탈이다. 정부의 복지제도역시 지지부진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의 경우 도시중산층의 두배를 낼 정도로 불공평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학생측과 정부는 소외된 이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기지촌, 탄광촌, 빈민촌 등의 도다른 봉사활동이 학생들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있으며 정부역시 1월 24일 '중소기업봉사활동인'을 발표, 중소제조업체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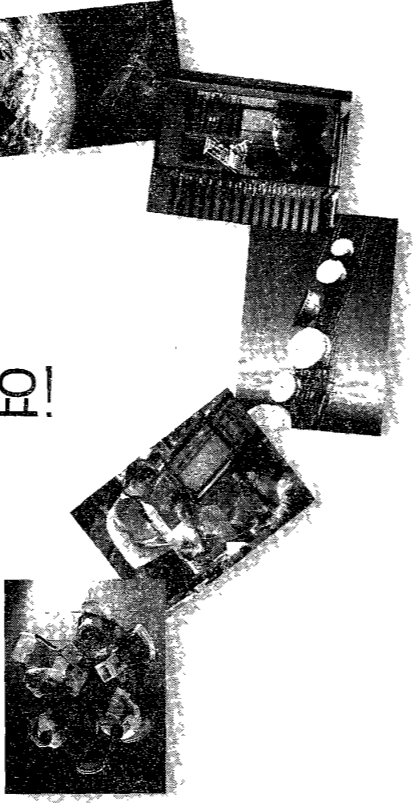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이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농촌에 대한 애정은 줄어들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농활을 마치고 학생들을 전송하려 나온 농민들이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마디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한누리 기자)

### Mobile & Multimedia

## 21세기 정보통신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보세요!

동일보와 한국이동통신에서는 21세기 우리나라 M&M(무선통신·멀티미디어)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수논문들을 공모합니다.



## 제1회 M&M 논문대상 공모

- 1. 응모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 2. 논문 주제 (이래 주제중 택일):
  - 멀티미디어 기반구조로서 이동통신의 발전 방안
  -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개선 방안
  - 멀티미디어 사대에 대한 정보통신 및 방송부문의 역할
  - 통신기술과 주파수 자원의 활용방안
- 3. 논문 분량:
  - 본 문: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A4 Size 20매 내외)
  - 요약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A4 Size 3매 내외)
- 4. 시상 내역:
 

등위	인원	상금	부상
대 상	1	1,000만원	한양대(주) M&M 논문대상 기념품
금 상	5	각500만원	-
은 상	5	각300만원	-
동 상	10	각200만원	생각가득
장려상	20	각100만원	-
- 5. 논문 작성비 지원:
  - 단체: 편당 10만원
  - 개인: 편당 5만원
- 6. 심사:
  - 1차: 서면 심사
  - 2차: 논문발표심사 (단, 1차 통과자에 한함)
- 7. 접수기간: 1996년 8월 19일 ~ 8월 24일
- 8. 논문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100-09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한국이동통신 홍보실 M&M 논문대상 담당자
  - 전화번호: (02)3709-1996 ~ 1998
  - ※우편접수도 가능 (연도식 면책 전액번호 기재)
- 9. 기타:
  - 접수시 신청서와 재학생증서 제출
  - 응모논문은 창작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 단체접수시는 반드시 대학(원)장의 공문 제출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주최자 소유임

특필만필

패섬죄와 개혁



한만수

“패섬죄”라는 말이 또다시 향간에 유행한다. 4.11 총선에 야당으로 출마했던 한 당선자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다. 사실 형법 어디를 들춰봐도 권력자가 패섬죄에 여집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패섬죄라는 죄목이 공공연히 유폐되는 현상은 분권시대를 연상케한다. 길을 가다 양반을 만나고도 감히 비켜서지 않거나 인사를 하지 않은 ‘상놈’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내린, 불결죄 패섬죄라는 죄목이 공공연히 적용된 조선시대 말이다.

물론 엄밀한 범죄국가임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패섬죄라는 죄목으로 의당선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적용법규가 엄격히 선거법 위반이고 실제로 그는 위법사실이 있던 한것같다. 그런데도 패섬죄라는 여론이 분분한 까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으로 일컫던 당선자는 여당 소속이 훨씬 많은데도 어찌서 야당당원들만 줄줄이 불러대다가 전두환씨의 검은 돈 61억원을 사파격에게 숨겨주었던 사람은 어찌서 여태 안녕하신가. 그가 야당소속이었다면 지금 버섯이 푸른 하늘을 보며 지낼 수 있을까, 작은 고기만 잡는 희한한 물이 바로 법망이라는 역설은 이미 상식이 되어서 피했기나, 이 정권이 서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고기만 골라 잡는 ‘표적사정’, ‘패섬죄’라는 그들이 무소불위의 위력을 떨치는 중이다.

올은 일을 하면서도 방법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 이 정권이 그렇다. 5·18과 ‘12·12’의 책임을 물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돈 안쓰는 선거를 해보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기여한 사람까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천권으로 탈고도 우리 후보가 돈쓰는 것은 괜찮지만 야당 후보는 안된다는 식으로 법안용이 되고 있으니 탈쟁이다. 방법이 공명정대하지 못한 탓에 내건 후보까지도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개혁을 주장하는 집권당이기에 더욱 도덕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선거운동 또한 그 정신을 따랐어야 했다. 개혁의 패섬죄라면 집권당 후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문책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치위치는 보궐선거라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에 더 많은 표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는 과연 순진한 환상에 그치는 것일까.

문학평론가

까지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전시군사재판권, 기지임대료문제 등 보다 중요한 사안에는 접근하지 않고 미군범죄자의 신분인도 시기만을 논의하는 등 행합을 개정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산하 미군범죄및 미군기지 실태조사 위원회의 김용환(위원장)씨는 “시민단체들이 불평등한 행합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전국민적인 관심속에 국회차원에서 행합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분명 행합의 개정은 시민운동단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어릴적부터 반공을 세뇌 받았고, 미국의 저질문화사대주의에 물들어 계속되는 미군범죄사건에도 무감각해지고, 빨갱이의 남침을 막아주는 고마운 미군의 고장도범죄와 맞붙을 때내내 눈감아줄 수 있는 당연하다는 생각에만 몰두한다.

땅은 한국땅이고, 국민도 한국사람이요, 주권은 미국의 것이 현 실정이다.

더이상 있어야 할 존재가치를 잃은 주한미군, 궁극적으로 그들의 활동에서 벗어나고 자주권을 돌려받는 일은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아닌 주한미군의 철수일 것이다. (최승일기자)

1억평땅 무상대여·매년 4조2천억 헌납

범죄는 계속...촉매제 행정협정 개선돼야

지난 2월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여고생 성폭행사건으로 들끓었다. 오키나와시는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시위를 오키나와시주제로 벌였고, 결국 정부의 주재로 무마되었다. 옛날 식민지를 거느리고 같은 짓을 자행한 전법인 일본조차 잘못 된점을 지적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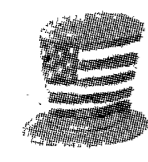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주둔한다는 자칭 평화주둔군, 그들의 주둔 이유는 더 이상 이유가 될수없다.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세를 불태, 경제력이나 식량난으로 한국 침공가능성에 대해 비판하고있으며 설령 전쟁이 난다고해도 한국의 군사력면으로도 충분히 대처할수있다고 전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구실로 주둔하는 미군이 일하는 피해는 막심하다. 현재 주한미군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절반이 넘는 1억평의 땅을 쓰고있는데 용 산을 예로 들면 현재 1백5만평의 땅이 미군기지로 쓰이고 있어 지하철과 도로가 기지를 피해 우회되는점과, 기지부근 건물의 고도제한등으로 서울시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이기지가 한탄의 일대로 없이 무상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기간이 무기한이고, 미군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세금 감면등 온갖 혜택을 본으로 환산하면 3만7천여명의 미군들중 한명에게 매년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셈이다.

게다가 미군기지가 서울특별시내에 위치 하도록 서울교과와 지방대도시에서 자리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격침을 하고있다. 더우기 지난 90년 용산 미군기지를 옮겨 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했으나 1백억달러의 이전비용을 전액 한국측이 부담하지

않으며 이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이는 필리핀이 주둔미군에게 12억달러의 기지임대료를 요구한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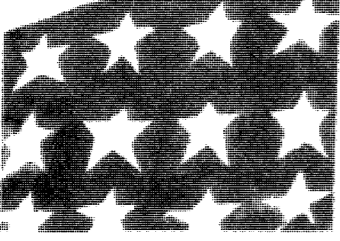
국내에서 빈발하는 미군범죄에 있어서도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일어난 미군범죄는 총3만9천4백52건(관린미군4만5천1백83명)이고 이중 0.7%만이 국내 사법처리되어 이는 일본의 32%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공통된 원인은 제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이하행협)에 기인한다. 이순만부대 군사정권을 거쳐오는 동안 대미에속관계는 차라리 한국이 미국의 52번째주라는 예기가 공공연히 나돌정도고, 지난 95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김대통령은 느닷없이 행협개정을지를 발표했으나 현재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난 4월23일 미 2사단 걸산리 산물진화중 산림계장과 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화 원인은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중 발생한 인막탄의 불꽃에 의한 것으로 잠정확인(?)되었으며 미군의 능률중으로 화제는 대형참사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 실태를 살펴보고 안미행정협정 개성과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더불어 동두천 산물참사 현장취재기를 실는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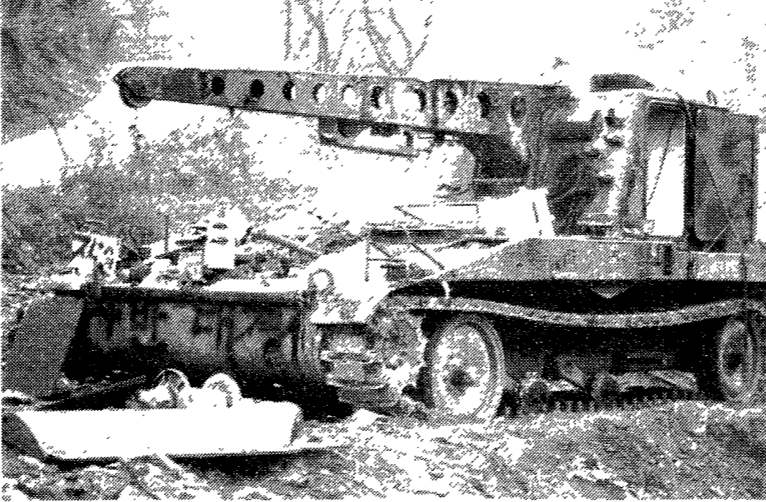


주둔, 고맙기만한 일인가?

◇르브-동두천 화재현장을 다녀와서

“누구때문에 죽은 목숨인데...”

오열하는 유가족...주민들의 힘겨운 공여지 반환운동



미군이 이땅에 주둔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비단 산물 참사만이 아니다. 엄연한 주민들의 발터에 미군 공여지임을 내세워 사격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사진 좌는 사고당일 유가족의 오열모습, 우는 발터에 배치된 홀쭉스런 탱크의 모습.

10분 이상 지난 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초기진화에 소홀했고 그에 따라 피해는 대규모 화재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사고 주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원기(22세, 공익근무요원) 씨의 진술에 의하면 ‘불을 거의 다 끄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산림계장이 점심먹으러 가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불길이 치솟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동두천 민주시

민회(회장=강홍구) 부회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불을 거의 다 끈 상태에서 서 낙엽이 잔 불길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피하지도 못할 정도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또한 “사람이 몸에 불이 붙으면 나뉘어도 불을 끄려고 땀을 흘려서 저항했을 겁니다. 근데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한 119구조대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신 7구가 2, 3미터 안에 모여있었고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 없었대요. 이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입니다.”라고 강력히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사고현장이 가스탄 사격장(오스카 훈련장)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불발탄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가스탄이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어 강력한 폭발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

서 미군이 초동진화에 능장을 부렸고 진화작업에도 적극성을 띄지 않았음은 위협성을 미리 인식한 몸사리기였던 것이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공백이 생각하는 미국의 태도를 이번사건에도 여실히 드러낸 모습이다.

미군의 이러한 태도는 산물의 화재현장에서 많지 않은 곳에서 또다시 마주칠 수 있었다. 합동분향소로 가는길에 우연히 미추진 쇠뿔마를 전막농성 현장, 미군이 사격장의 확장이유로 엄연히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밭터에 홀쭉스런 탱크를 배치해 자기땅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에 주민들은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50일째 ‘미군사격장 확장저지 및 공여지 반환을 위한 무기한 전막농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힘겨운 싸움이다.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동두천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미군의 땅. 그들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우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도 정부의 눈과 입, 귀는 한미행정협정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을 뿐이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소너를 추행했음에 일본정부가 보였던 모습은 그들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다. 산물참사 이후 동두천시장은 각 초등학교에 유가족들이성금에만 열중하고, 우리의 문민대통령은 커다란 화환에 이틀씩자를 적어 보내왔다. 초라한 비닐하우스 분향소앞에 무너져 무릎 꿇고 서있던 그 홀쭉스런 탱크를 고인의 어머니 모습이 자꾸만 겹쳐 떠오른다.

“미군이 이번 산물참사 이후에 한 일은 위로금 60만원 먼저준것 뿐입니다. 이게 개죽음이지, 미군놈들은 지를 개가 죽으면 이리저리는 양을 겁니다. 누구때문에 죽은 목숨인데, 누구때문에...” (김기영 기자)

21C 초일류 고급지. 최고의 발행부수 최정상급의 스포츠신문. 스포츠서울. 하루 50만명...접속폭발의 인터넷 신문. 뉴미디어 총아. 서울신문 뉴스넷. 서울신문은 질(質)로 경쟁하는 초일류 고급지입니다. 서울신문은 부수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새로운 주제! 서울신문에 여론주도층 시선집중. 서울신문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생활의 가교입니다. 서울신문은 질(質)로 경쟁하는 초일류 고급지입니다. 서울신문은 부수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생활의 가교입니다.





# 설문조사

본사는 보고 개교 90주년과 본지 지령 1200호 발행을 기념해 학교와 동대신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3일 실시했다.  
총 3백부를 배포, 수거한 이번 설문조사는 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별방문을 원칙으로 했으며 퍼센트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편집자)

## ◆ 설문 I - 학교

### 이공계열 집중육성·건물 확충 시급 '발전 기금 참여하겠다' 67%

기념행사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관심은 저조

#### 기본 인식

‘개교기념일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254명 84.7%) △모른다(46명 15.3%)로 대체로 재학생 중 상당수가 개교기념일을 아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가는 △안다(110명 36.7%) △모른다(190명 63.3%)로 나타나 많은 학생이 교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회가 없었다(150명 78.9%) △너무 어렵다(22명 11.6%) △종교적 색채가 짙어 배우지 않았다(5명 2.6%)의 순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교가를 부르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발전 방향

본교가 중점 육성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공계열(128명 42.7%) △인문사회계열(82명 27.3%)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학계열(31명 10.3%) △예술체육계열(25명 8.3%) △어문계열(21명 7%) △불교계열(10명 3.3%)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강의실 및

각종 건물 확충(181명 60.3%)이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 매년마다 문제제시되는 공간확보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용, 실습 기자재 확충(68명 22.7%)도 투자가 시급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 개교 90주년

본교가 93년부터 실시해온 ‘동국발전기금 모금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193명 64.3%) △모른다(107명 35.7%)로 나타나 실시 기간에 비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발전기금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할 수 없지만 적극 홍보하겠다(35명 11.7%) △재학 중에 참여하겠다(19명 6.3%) △부모 또는 친지를 통해 참여하겠다(14명 4.7%) 등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01명으로 67%를 차지했으나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98명으로 32.7%나 돼 학교에 대해 적지 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교90주년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35명 11.7%) △알고 있다(165명 55%) △잘 모른다(64명 21.3%) △전혀 모른다(36명 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개교기념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11명 3.7%) △참여하겠다(48명 16%)의 참여(59명 19.7%)의견과 △참여하지 않겠다(59명 19.7%)는 의견이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잘 모르겠다(182명)로 60.7%나 돼 개교기념행사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념행사를 잘 모르는 이유를 △홍보 부족(67%)으로 지적했다. 가장 관심 있는 개교기념행사를 묻는 질문에서 △KBS기념음악회(256명 85.3%)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가운데 △기념음악제 비전(21명 7%) △기념법회(7명 2.3%) △중국어민속공연(6명 2%) △동국인 저작도서 전시회(6명 2%) △동국대학교 소장 국보보물전(4명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기념행사의 홍보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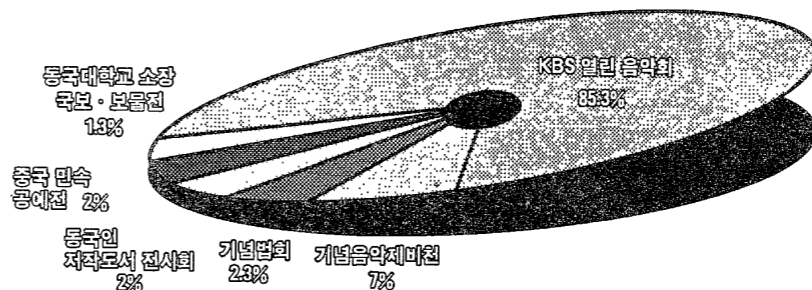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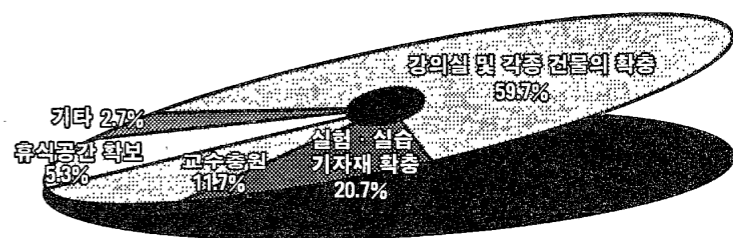
(취재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본교의 발전을 위해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개교기념 주간엔 개최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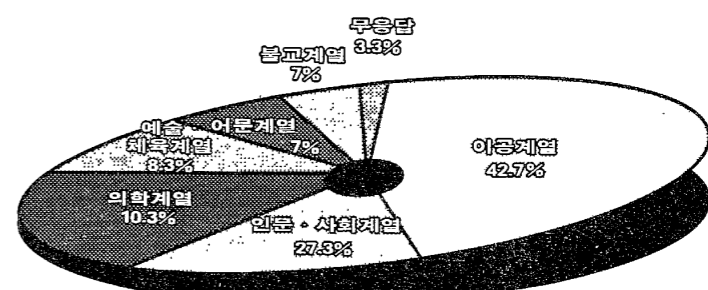
다음의 행사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교가 중점 육성해야 할

계열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설문 II - 신문

### ‘한달에 2번(22.7%) 죽 훑어본다(39.7%)’ 여론면 가장 선호·회전무대 애독 동대신문 대체로 신뢰 영향력은 떨어져

#### 기본 인식

‘신문이 매주 월요일자로 발행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176명 58.7%) △모른다(124명 41.3%)로 대체로 과반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신문 발행기간과 발행일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한달 기준)’란 질문에 △2회(68명 22.7%) △4회(62명 20.7%) △1회(57명 19%)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3회가 35명 11.7%로 나타났다. △전혀 안본다도 62명 20.7%에 이르렀다.

#### 독자 성향

신문을 보는 방법은 △죽 훑어본다(119명 39.7%) △관심있는 부분만 본다(89명 29.7%) △끝까지 읽어본다(15명 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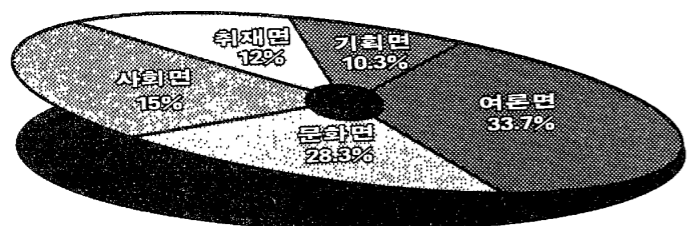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면은 △여론면(101명 33.7%) △문화면(86명 28.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면(45명 15.1%) △취재면(37명 12.3%) △기획면(31명 10.3%) 순으로 뒤를 이었고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도 △여론면(81명 27%) △문화면(68명 22.7%) △사회면(58명 19.3%) △기획면(47명 15.7%) △취재면(46명 15.3%) 순으로 나타나 신문에 대한 독자참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자들은 △회전무대(137명 22.8%)를 가장 즐겨 읽으며 △사설(86명 14.3%)과 △만평(81명 13.5%)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뢰 평가

동대신문의 신뢰 정도에 관해서는 △보통이다(198명 66%)가 가장 많았고 △신뢰한다(73명 24.4%)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101명 33.7%) △문화면(86명 28.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면(45명 15.1%) △취재면(37명 12.3%) △기획면(31명 10.3%) 순으로 뒤를 이었고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도 △여론면(81명 27%) △문화면(68명 22.7%) △사회면(58명 19.3%) △기획면(47명 15.7%) △취재면(46명 15.3%) 순으로 나타나 신문에 대한 독자참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자들은 △회전무대(137명 22.8%)를 가장 즐겨 읽으며 △사설(86명 14.3%)과 △만평(81명 13.5%)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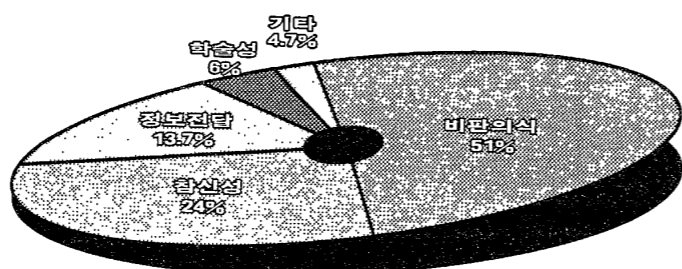
△회전무대(137명 22.8%)를 가장 즐겨 읽으며 △사설(86명 14.3%)과 △만평(81명 13.5%)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면은 △여론면(101명 33.7%) △문화면(86명 28.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면(45명 15.1%) △취재면(37명 12.3%) △기획면(31명 10.3%) 순으로 뒤를 이었고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도 △여론면(81명 27%) △문화면(68명 22.7%) △사회면(58명 19.3%) △기획면(47명 15.7%) △취재면(46명 15.3%) 순으로 나타나 신문에 대한 독자참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자들은 △회전무대(137명 22.8%)를 가장 즐겨 읽으며 △사설(86명 14.3%)과 △만평(81명 13.5%)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부)



가장 관심있게 보는

면은 어떤 편입니까?



대학신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파고다외국어학원

人材가人材를 만든다.

별쳐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 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27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길을 걸은 저희 PAGODA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합니다. 이 지구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울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화를 반드시 외국어 정성에 오르도록 힘껏 도울 것입니다.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본좌원장), 홍성택 대원(본좌원)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PAGODA**



영 어	
기초영어회화	기초영어 SIDE BY SIDE FIFTY-FIFTY A CONVERSATION-LADO COMMUNICATE
영어 청취 어휘/문법, 진학 취업	TOEFL(LC)/TOEIC(LC)/GRAMMAR/Vocabulary READING/Writing/GRE/GMAT/AFKN 기초영문법, 독해, 청취, 작문/발음교정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PAGODA-미국 위스콘신 WESLI 2~4개월(1일 5시간교육) 2~4개월(1일 4시간교육) 교육중 입학허가서류독 교육중 미국대학(원)지원

최신영어특강 프로그램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교수진원 미국인
INTENSIVES.I.E. COURSE	1일 2시간 주 5회/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 전문미국인
INTENSIVE ENGLISH COURSE	미국인 교수(직·박사)에 의해 1일 5시간 집중영어 교육 영어의 종합적(회화·문법·독해·작문)능력발성 4달완성 미국대학 공인 프로그램(주 5회 12명 정원)

일 본 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 문법
스크린 일어회화 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인 회화 (초급 I, II, III)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독어강좌	프랑스인 불어강좌
중국어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러시아어 강좌 및 모스크바대	1일 3시간/1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대 입학

중로 274-4000 (중로 파고다공원 앞 한빌빌) | 영문 3442-4000 (영문 광역 3번 출구 동문대교길) | 신촌 706-4002 (신촌 3번 출구 7번 출구 5m) | 강남 501-4002 (강남 전철역 7번 출구 세티빌빌)

창간 1200호를 맞이해 전보골만필 필자들의 회고담을 실는다. 1950년 4월15일 창간 이후 46년이 지난 오늘, 동대신문은 1996년 5월 6일자로 12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동대신문과 함께 호흡하며 동약의 역사를 이어나간 본사 동인들에게, 학생기자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 “우리는 천이백번 신문을 만들었지만 천만번의 땀과 피눈물을 쏟아야 했다”

## 우리는 추억속에 살고 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들처럼 어려운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1950년,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살아 온 우리들의 친구들은 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더러는 이미 먼 나라로 떠나고, 더러는 아직도 이땅에 살아남아서 이른바 일당 달러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삼이랑 참으로 고달프고 길긴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린 한때의 일들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아직도 잊지 못할 많은 사연들을 회상하고 있다.

전종이란 한자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던 ‘실존주의’의 물결,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그리고 부조리의 아르베르, 카뮈……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못했다.

때로는 우스꽝스런 필통의 어느 골목 선술집에서, 때로는 다 타버린 명동의 어느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걸리, 그리고 풍나물과 돼비치,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공전도 부럽지 않았다. 거기엔 순수무구한 우정이 있었고, 전진난만한 사

전쟁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던 ‘실존주의’의 물결.

랑이 있었고, 철부지 나름의 철학이 있고, 설익은 우리들의 문학이 있었다.

그때 그 자리의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제가 왔었다. 제가 읽은 책이 이 세상의 법전이었어, 제가 본 영화나 연극이 가장 영리한 고전적 의미였다. 말하자면, 그렇게 저마다 메달과 있었다.

그 무렵 내 주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학과와 영문과 친구들이 많았다.

동국일보시절이 떠오른다. 얼마나 추운 계절이었었나. 이제는 아무리 먼 나라로 떠난 이창대형, 이 친구만큼 다혈질인 사람을 아직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때 우리 학생들의 청을 잘 들어주시던 최봉수선생님, 그리고 따뜻한 국물과 따뜻한 ‘정음’을 사주시던 백철선생님을 잊지 못했다. 소주·맥걸리에서 일약 고급스런 정음을 마시게 되는 그 최초의 감각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뒤돌아보는 시간은 언제나 아쉽고 많다. 동국학생시절의 속간을 위해서 그 추운 날 종로 뒷골목 자그만 인쇄소에서 직접 교정을 보고,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할 때의 그 희열은 무엇에 비하랴. 이것은 단순한 희열이 아니다, 적어도 훗날 우리의 자랑인 동국시절을 있게(續)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작업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자찬하고 싶다.

추억은 끝없이 아름다운 것, 학창시절, 그 청순한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착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한국문인협회이사장·국문55호)



황 명

## 대학신문사상 최초 배포한 호의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살벌한 판에 정부에서는 중흥단 쪽에 느닷없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착공했다.

운동장이 없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던 동국대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고, 절망적인 소식이였다.

당시 중앙도서관 납북 장충단에 운동장을 설치하는게 유일한 꿈이었기에, 바로 그 꿈의 자리에 정부가 중앙공무원교육원 건물을 착공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편집부장을 맡고 있던 나는 믿음직한 후배 학생기자 몇명과 함께 밤새워 ‘동대신문 호의’를 만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호의’가 뿌려지면서 전교생이 데모를 벌였다. 아마도 대학신문사상 최초의 ‘호의’였을 것이다. 이 일로 나는 구속직전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지어졌던 건물이 지금은 모교의 강실로 이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장된 일인가.

그후 나는 너무 잦은 교수님들의 휴강사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후배 학생기자 이상우와 함께 교무부에 보관되어 있던 휴강통계를 훑쳐내어 동대신문 한페이지에 특집으로 특

계엄사령관의 망언을 폭로한 이후 신문은 압수되어 화형을 당했고 그 사건으로 나는 동약을 떠나야 했다.

로했다.

- 한 학기 휴강 1천6백20시간!

한학기 내내 단 한번도 강의를 하지 않고도 월급·보너스까지 타가신 H라는 뻔뻔스런 교수의 경우도 고집했다.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퇴학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이 보도로 뻔뻔한 그 H교수가 학교를 떠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한뒤, 계엄사령관이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 학장님들을 세워놓고 망언을 일삼았다.

- 똑똑한 교수는 국회의원을 해먹고 병신 같은 것들만 대학에 있으니 학생들이 발을 들올게 일나!

- 개 폐지 같은 놈들, 데모만 하면 싸우며 버리겠다!

- 이 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저 속속에 끌고가서 강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자신의 사타구니를 가리키며)법이 있기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을 엄하게 고쳐서 데모하는 놈은 모조리 퇴학을 시켜라! 그러면 데모는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 계엄사령관의 망언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동대신문에 폭로했다.

- X 정권인행, 공갈협박자 래고(來?)

신문이 나온 다음날 아침 학교는 벌레 뒤집혔고, 신문은 모조리 압수되어 지하 보일러실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때 필사적으로 신문을 끄집어 내던 후배학생기자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나 이 사건으로 나는 동대신문과 동국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게 벌써 30여년 전의 일이다.



윤 청 광

## 그대들, 동료들 사랑하라

반 지하의 신문사는 늘 침침했다. 시대상황은 그보다 더욱 암울했다. 신간호선배(당시 동대신문사 총무)가 없었더라면 난 동대신문사 기사가 될 수 없었다. 신간호는 고교 때부터 인연을 맺었기에 소위 ‘일사 시행’이란 걸 강권했다. 그래서 ‘빛나는’ 신문사 기자가 됐다. 한달 월급은 4,000원. 막걸리는 넉넉하게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때 편집장이 됐다. 그때 만난 이

름들, 남상균 장영미 최길동 이원섭 이정 이철호 한만수 안동일 권일영 임익두 권운옥 권복순 권인옥... 우리들은 지하왕국에 모여 투쟁한 수업을 빼먹고 키득거렸다. 우리는 동료 아닌 ‘출근’을 했고 학교 아닌 ‘퇴근’을 했다. 캠퍼스를 짓누르고 있던 살기.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 모여서야 비로소 안도했고 기가 살았다. 우리는 정말 땀뚱 뚱했다.

대학이 부끄러움을 갖고, 캠퍼스는 무기력 했고, 우리를 무리는 속절없이 질러나갔다. 개인의 머리를 자르는 권력, 누구도 뚫지 못했던 불신의 시대. 우리는 남마다 꿈을 꾸고 그걸 사신해야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학생회 성격의 학도호국단 간부 하나

사회구석구석을 달린 ‘우신의 헛바닥’ 그 고통을 문술수가 없어 우리는 그걸 서로의 가슴에 묻었다.

가 기사에 불만을 품고 신문에 달려와 난동을 가까운 소란을 피웠다. 그때 선배 하나가 벌떡 일어나 “편은 칼보다 강하다”며 편을 쥘었다. 그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쥘른 것이었다. 당시엔 무용담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

사회구석구석을 달린 ‘우신의 헛바닥’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도 묻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걸 서로의 가슴에 묻었다. 우리는 형제보다 가까웠다. 모든 갈등을 모아 태우던 지하 공간. 그 순간들을 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은 왜 그리 많았는지 기획하고 기사 쓰고 편집하고.

그때의 동대신문 품격은 장안에서 모두 알아줬었다. 물론 그런 지금은 풀이개신 승화주간님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분은 우리의 울분과 치기를 절묘하게 풀어주시거나 삭혀 주셨다. 우리를 기쁨의 명점을 지적하시고 갈속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신문의 품격’에 대해 눈을 떴다. 그것은 호풍이 아니라 늘 가만가만 다가오는 봄이며 소리없이 적시는 봄비였다.

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그리고 시국선언 유인물을 뿌리던 신문사 후배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신문사 생활을 제하면 학생시절의 ‘나’는 없는 것 같다. 방학이 되고 모두들 시골로 떠날 때 서로를 왜그리 정한 마음이 들었는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렇까. 지금도 그때의 동지들이 반갑고 신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에도 귀를 세운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대들, 동대신문보다 동료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 젊음도.

신문사 생활을 제하면 학생시절의 ‘나’는 없는 것 같다. 방학이 되고 모두들 시골로 떠날 때 서로를 왜그리 정한 마음이 들었는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렇까. 지금도 그때의 동지들이 반갑고 신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에도 귀를 세운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대들, 동대신문보다 동료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 젊음도.

신문사 생활을 제하면 학생시절의 ‘나’는 없는 것 같다. 방학이 되고 모두들 시골로 떠날 때 서로를 왜그리 정한 마음이 들었는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렇까. 지금도 그때의 동지들이 반갑고 신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에도 귀를 세운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대들, 동대신문보다 동료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 젊음도.

신문사 생활을 제하면 학생시절의 ‘나’는 없는 것 같다. 방학이 되고 모두들 시골로 떠날 때 서로를 왜그리 정한 마음이 들었는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렇까. 지금도 그때의 동지들이 반갑고 신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에도 귀를 세운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대들, 동대신문보다 동료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 젊음도.

신문사 생활을 제하면 학생시절의 ‘나’는 없는 것 같다. 방학이 되고 모두들 시골로 떠날 때 서로를 왜그리 정한 마음이 들었는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렇까. 지금도 그때의 동지들이 반갑고 신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에도 귀를 세운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대들, 동대신문보다 동료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 젊음도.



김 택 군

## 민주화의 전초기지였던 80년대

80년대 동약은 학문의 정당 이라기보다는 민주화의 전초 기지였다는 생각이 든다. 5·17이후 도산시위는 엄두도 낼 수 없던 터라 학우들은 사출이 많다고 교정에서 독재정권을 규탄했고 며칠후 신문 한 귀퉁이에 누구누구 집시범위 반으로 구속이라는 내용없는 1단 기사의 함께 사라져 갔다. 여기에 어느날 뜬금없이 날라온 영장에 전방오지로 끌려간 학우가 그 얼마인가? 그리고 때때로 최류탄에 저물린 강의실에서 전방에 있는 학우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탄하던 그때...

그때가 80년대 초다. 불행한 시절의 이름은 학교와 교수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의식이라는 평을 받는 교수의 강의실에서는 특수기 공무원이 학생인냥 버젓히 강의를 들었고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장학금(?)까지 주어야 했다. 그리고 정각원의 부처님도 사출이 많다고 방담 내부까지 날라온 최류탄에 남산의 맑은 공기맛을 잃어야만 했다. 그리고 불상 주변 나무는 학우들이 올라가 시위를 주도한다는 이유로 가시철망 옷을 입어야 했다. 82년인가... 사학과의 P교수는 나이는 학생(?)을 강의실에서 망신 주었다

군사정권을 필난하며 시대를 고민했던, 그러나 도서관은 항상 불야성을 이뤘던, 동약의 80년대는 그렇게 흘러갔다.

는 이유로 직장을 바꿔야했어 학교들은 이들에게 구내에 연구실(?)까지 마련해주어야 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대학편안 후록문들이 그들이 84년 2월 28일까지 연구(?)를 했던 본부였다. 그 자리가 동국대에 세워지전 동약의 모든 곳을 한눈에 조망할수 있었던 명당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의식은 거의 정미되었고 애창곡은 80년대 중반 출정가가 나오기 전까지 아침이슬과 인을 위한 평정곡이었다. 시위관련 은어도 많았다. 독재정권을 규탄한 유인물은 피, 시위는 디, 시위를 주도한 학우는 제비, 정보기관원은 짐새라고 부른 기억이 난다. 시위장소에서 유인물 한장 주어 가방에 넣었다가 불심검문에 걸리면 반드시 피를 보아야 했고 형가를 마친 시위주도 학우는 캠퍼스로 반드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험하고 없지만 후론 골목골 이집집을 비롯한 폐재재한 선술집은 늘 짝꾸기 안주에 소주를 놓고 군사정권을 필난하며 시대를 고민하던 교수님들과 학우들로 들끓던 시절, 그렇지만 도서관은 항상 불야성이 불야성을 이뤘던 시절, 동약의 80년대 초는 그렇게 흘러갔고 시간은 학우들을 사회로 내몰았다. 이제 “젊은 놈들이 왜 그리 용기가 없노” 호령하시던 노 교수님들은 못을질을 기르고, 민선 청년이양하던 이들도 30대중반이 됐다.

그리고 학창시절 가끔 왔어오는 70년대 선배들이 자신들은 불행한 세대였다고 자란만하면 기성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불어왔던 기억을 하면서도 이제는 X세대라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학창시절은 억울했다고 강변한다. 동약 90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기억된 사연이 있듯이 80년대도 그렇게 시작했고 마무리 됐다.



남 선

(필교방송기자·영문 87호)

쉽고 빠르게 딱딱 들어온다!

도해를 겸한 字源 풀이 사전

# 秘法漢字

비법 한자

權智庸·姜忠熙 共著 / 鄭周永 監修

지금 비법을 전수받으세요!

1. 머리에 쏙쏙 들어 온다  
지원을 통해 漢字의 원래 뜻과 그 근원의 유래와 발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漢字를 빠르게 이해하게 하고 머릿속에 쏙쏙 심어 줍니다.
2. 漢字의 실력을 10배 증가시킨다  
한 글자를 알면 두 자, 세 자, 네 자... 등 고려처럼 연결된 漢字를 연상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약자와 동자, 속자 그리고 漢字 단어와 속어는 물론 고대의 신앙, 언어, 풍속 등을 익힐 수 있는 일석십조(一石十鳥)의 책입니다.
3. 글씨 교본이 따로 없다  
글자 한 자 한 자마다 운필법에 의한 漢字 쓰는 법과 필순에 의한 쓰기 공부는 까다로운 漢字라도 바로 그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4. 없는 게 없이 딱 차 있다  
부족으로 고사 속어 풀이, 사자소해, 우구집, 천자문, 대방의 신성 사용법, 한자, 삼강오륜, 주자시, 유물집, 등 고대 문화에 관한 모든 상식을 갖춘 한자의 백과사전입니다.

• 차(4x6배판) 12,000원 • 2쇄도 인쇄  
• 차(3x6배판) 8,000원 • 3쇄도  
• 차(3x6배판) 5,000원

각종 시험 완전 정복 한자 상식 총집합

## 漢字登龍門

다양한 문체 형식을 도입하여 수필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어떤 형태의 출제 경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생활 한자책.

• 장수영 편저 • 312쪽 • 6,000원

서울시 중로구 중로6가 196번지 Tel:762-9348, 763-6767 Fax:765-1331

## 책속의 열린 어학원

# 열린영어

이중훈/저

지금 직접 열어 보세요!

- ▶속이 딱 차 있습니다  
광고, 영화, 포스터, 사진, 벽화, 조각품을 포함한 1,000점이 넘는 그림과 ‘타이타닉’에서 ‘어린 왕자’에 이르기까지 ‘세나리오’ 희곡, 소설, 영자 신문 기사 등 모든 장르를 망라하여 예문으로 취합했습니다.
- ▶·귀·입 모두 열립니다  
얼나게 위우고, 열심히 쓰고, 열 번도 넘게 봐도 못 알아듣는 영어, 이제 ‘열린 영어’가 해결해 드립니다.
- ▶끼가 넘칩니다  
속어와 단어에 얽힌 유래와 어원을 알면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 뜻을 통해 익히나 흥미있고 재미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감각이 생깁니다  
우리의 사고력과 상상력이 배어 있는 우리 문화 속의 상징들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 2쇄도 인쇄 • 544쪽 • 10,000원

점두사·점미사·어근을 활용한

## 영단어 스피드 암기 5000

점두사를 통해 의미를 직관하게 하고, 점미사를 통해 품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고, 단어의 중심인 어근의 어원을 풀이하여, 영단어의 구성과 의미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하겠다.

• 2쇄도 인쇄 • 353쪽 • 7,000원

서울시 중로구 중로6가 196번지 Tel:762-9348, 764-7756 Fax:765-1331

보람있는 대학생활의 길잡이

# 캠퍼스사망

元隆喜 著  
신국판 / 436면  
반양장 / 8,000원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대 인생의 좌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다 맛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의준비는 어떻게 하고, 리포트(report)는 어떻게 쓰며, 동아리활동은 어떻게 해야 후회없는 시간이 될까? 수많은 책, 전공도서와 교양도서, 영화, 음악, 세미나... 물론 하나인데 보아야 할 것들, 언어야 할 것들, 참석해야 할 것들, 써야 할 것들... 무슨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 지... 여기 전의 교수 후임들이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내는 비법을 소름이 잔뜩주고 있습니다. 그대! 보다 맛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그 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653-41  
TEL: 914-1621 / 917-6240

세계화를 향한

# 現代國際關係學

교사 임용고시 및 대학원입학시험대비

## 英語學研究 (해설 및 문제수술)

철학사상 탐구선양회 편

# 東西思想의源流

이현구 著  
값 15,000원

金喜午 著  
값 17,000원

값 9,500원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653-41  
TEL: 914-1621 / 917-6240  
FAX: 912-4438

◇ 나는 동국을 이렇게 바라본다

# Students Are The University!

— 존 셰리단(영문학 교수)



"Good afternoon"이란 인사로 John Sheridan(영문학)교수는 기사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구렛나루 하얀 턱수염 얼룩 넥타이에 빨간양말. 그리고 환한 미소의 그는 한국의 여느 교수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사뭇 든다. 그는 교내에서 몇 안 되지만 익숙한 외모의 미국인 교수로 교정을 거닐며 누구나 한두어번 이상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기자는 지난 1일 그의 연구실에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어 동국대에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노력하는 Sheridan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학교에 처음 왔을때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동국대가 불교종립학교인데서 찾을 수 있었죠. 그만큼 그는 개교 90주년을 맞은 동국대와 불교의 함께 오랜 역사를 같이 한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다고 한다. 또 불교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불교가 전통문화와 상업주의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처럼 동국도 같은 자세로 다시 새로이 되새김해보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의 생활 기간이 긴 탓에 미국 학생들과 한국학생들과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문화적 상충을 이해하지만 이곳의 대학생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3 입시지옥 경험 때문이겠죠? 대학에서의 자유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전념한 댓가로 받은 '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죠."

그는 이어 "미국은 고등학교때 소프츠, 레저 등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오히려 대학교때 공부하는 것에 지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라며 아쉬워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자유로운 생활은 좋지 않아요. 학생들이 출석하는만큼 수업에서도 열의를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더 당부할 것이 있다.

"Students Are The University" 동국대를 상징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학생들이라며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대학교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달려있다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어린, 짧지만 굵은 문장인 셈이다.

1994년 8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비록 만2년도 안돼지만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넘치는 Sheridan교수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Thank you"란 말을 넣어주길 당부했다.

이것은 동국 90주년의 역사에 축하 마음과 동국을 알게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어 아닐까? (한상용 기자)

# 옛 명성을 되찾아야죠

— 이창운씨(본교 졸업기자)



기자를 눈에 비친 동국 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60.70년대까지만 해도 잘나갔었는데... 이번 개교 90 주년을 계기로 옛 명성을 되찾아야죠" 현재 우리학교의 위상을 돌리는 질문에 조금은 안타까워하는 듯한 본교출입기자 '법보 신문' 이창운 씨.

비가 오는데도 땀을 흘리며 "올라올 때보다 살이 다 빠지는 것 같아"라며 고지 점령에 어려움을(?)을 토로하곤 하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본교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다르다. 뜻밖에도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87학번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모교를 자주 찾는 이른바 '동국맨' 기자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기자로서 바라보는 동국발전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자긍심'이다. "사회에 나가면 자신이 동국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동국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라며 본교 동문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 갖기를 강조한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도약의 원동력이라며, 그러면서 자신은 어디에서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멋있게 뽐낸다고 웃으며 덧붙인다.

불교계 기자이기에 조계종 재단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학교가 종립대학이기에 교계 인재양성에 힘써야 함을 얘기하면서도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는다. "조계종의 가장 큰 불사는 '역경, 도제 양성, 포교'에 있어요. 이 3대 역경 사업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종립대학인 본교의 발전은 조계종의 발전과 연결이 됩니다"라며 재단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어 그는 재학생들에게도 한마디한다.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어렵지만 쉬운 진리를 실천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방학중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으면..." 하는데 모두 선배로서의 당연한 욕심일까.

또 '승가'라는 말은 화합대중의 뜻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그는 한편으로 "솔직히 사회에서 동국대학교의 이미지는 썩 좋은 편이 아닌것 같아요. 심지어 불자들도 동국대학교에 대해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라며 이미지 개선에도 관심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다.

처음 본교 출입처를 맡게 되었을 때 '고향집에 온 것'이 편한 느낌이었던 그는 동문 기자인 그. 이창운 기자처럼만 우리 모두가 모교를 사랑한다면 다음 개교 1백주년에는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영규 기자)

# 낭만과 여유 넘치는 멋이 좋아

— 김현숙씨(학안집 아주머니)



White House. 백악관이 아니다. 정신병원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학교 가까이 접해있는 '학안 집'이라는 일반 음식점이다. '학안 집'은 학교 주변에서 동국대와 80년대를 같이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로 역사가 깊은 곳이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골목골목에 쌓여 가는 학안 가루들, 참기 어려운 냄새... 그런 학생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잘은 몰랐어요. 오히려 시위를 하면 '학안 집' 주인 아주머니 김현숙씨의 말이다. 아직 5시라는 시간이지 않는데 손님이 별로 없다. "그때는 낭만과 여유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끔씩 본 안내고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도망가는 학생들을 일부러 그냥 보내준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일부러 속아준 것도 모르고 밖에서 장난에 성공해 좋아하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워 했어요." 요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학안 집'에는 다른 음식점이나 술집과는 달리 화려한 인테리어나 조명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노랗게 바랜 벽에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을 뿐이다. 조금 특이하다면 다른 음식점에서는 볼 수 없는 '조국과 청춘'의 홍보용 포스터 몇장이 붙어 있다는 것 정도다. "학교 주변이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화려한 술집도 많이 늘고... 이 곳도 좀 좋게 고쳐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대로 보존하는게 어떠냐는 말을 듣고 그것도 편찮을까 생각했죠.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살짝 번지는 미소속에 조금은 쓸쓸한 웃음이 섞인다.

"학안 집"에도 선택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전통도 있다. 돈이 없어 말간 학생들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찾으러 오면 공공 얼어있는 학생들을 꺼내 방치로 얼음을 깨고 쓴다는 것. 알고보니 학생들을 말리고 찾으러 오지 않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말로 변한 것이라 한다. 이제 손님이 제법 늘었다. "학생들에게 그동안 솔직히 정도 많이 들었죠. 솔 마시러 온 학생이 들고 있는 동대신문을 열어 읽을 정도로 동국대의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고 길에 지나가다 동국대 얘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가게 돼요. 그런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이라니 저도 기쁩니다." 슬마시러 온 학생들이 들고 있는 동대신문을 열어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동문이었으면 하고 바랄때가 많아요' 아주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난 속으로 조용히 말해본다. 이미 당신은 개교 90주년을 맞은 자랑스런 동국대학교의 동문 중 한 사람이라고... (김상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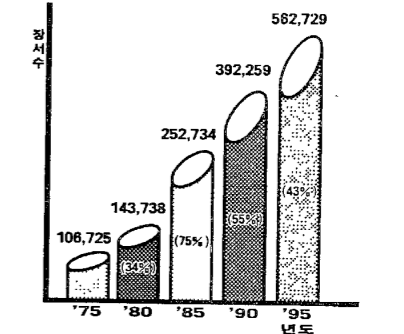
◇ 지표뉴스

## 동국 90년을 짚어본다

(75년 이후 도서관 장서 변화) (96.2.29 현재)

	1975	1980	1985	1990	1995
장서수	106,725	143,738	252,734	392,259	562,729
5년간 증가장서		37,013	108,996	139,525	170,468
도서구입비(천원)	16,256	67,836	229,935	209,940	279,617

\* 자료: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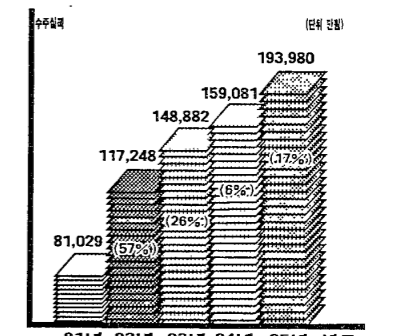
\* ( )안은 5년간 장서 증가율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실적 현황) (단위:천원)

	1991	1992	1993	1994	1995
서울	79,629 (39)	108,648 (50)	141,950 (63)	128,149 (57)	163,791 (70)
경주	1,400 (3)	8,600 (11)	6,932 (10)	29,943 (18)	30,188 (16)
합계	81,029 (42)	117,248 (61)	148,882 (73)	158,092 (92)	193,980 (86)

\* 자료: 도서관(90주년사 발간 준비자료)

( )은 주진수



\* ( )안은 매년 수주실적 증가율

(1995 대학별 컴퓨터실 현황 비교)

대학명	기준연월	교육용컴퓨터 보유수	컴퓨터 1대 당 학생수
건국대	12/57	1,125	113
경희대	10/250	10,844	9.5
국민대	8/460	6,976	12.2
동국대	17/130	1,318	13.0
서울대	20/120	1,049	19.2
숙명대	7/260	340	21.4
전남대	21/242	213	99.7
포항공대	2/570	908	2.8

\* 자료: 교육혁신(각 대학국회제출자료기준)

(정리= 고지은 기자)

◇ 지명, 건물 명칭 및 유래

## 동국역사 밝히고 전학이념 구현을 표상

어감을 갖고있다. 금강관(金剛館) 운동부선수들의 합속소로, 금강은 강건,불변,용맹,정진등을 상징한다.운동부 선수들이 금강역사들처럼 되길 기원하며 명명했다. 원흥관(元興館) 1,2,3공학관을 원흥관으로 통일시켜 개명했다.원흥은 원효사상의 현대적 부흥을 의미한 원효사의 절이름으로, 본교가 최초로 개교했던 곳이다. 학림관(學林館) 사대건물을 학림관으로 개명함, 학림은 본교의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의 교명에서 차용한것으로 근대교사에 있어서 학림관은 교육기관을 뜻하는 것이다. 다향관(茶香館) 복지불교용어로 공양이

라는 말이 있는바 공양의 내용으로 보아 향과 다가 중시되므로 동향관의 기능을 감안 다향관으로 결정했다. 계산(桂山)관·계산고시학사 본교 동문인 박계산(황정대학원77졸)씨가 기증한 건물로 그의뜻을 기리기위해 이름을따 명명함. 정각관(正覺館) 정각관의 전신인 승정전(지방유형문화재20호)을 이전 복원한것이다. 정각이란 "바른게달음"을 일컫는 불교 용어로서 본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본교의 실신수련도량이다. 동악로(東岳路) 조선 선조때의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선생의 문명을 기린

동약선생시단이 사벌대앞에있는데 이곳은 동약선생이 시를 읊던곳이다. 그래서 이곳부터 본관에 이르는 길을 동약로라한다. 목덕골(木德窟) 본교를 감싸고 우뚝 솟은 남산을 목덕산(木德山)이라고도 불리웠으며,목덕골은 '남산의 마을'이란 의미를 지닌다. <경주캠퍼스> 온방굴(溫房窟) 본교를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미산은 천도교와 사천교의 모체가 되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전파했던 최재우의 용담정이 펼쳐있는 곳이며 이곳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라 하여 온방굴

이라 부르고 있다. 원효관(元曉館) 86년, 인문사회학관이었던 것이 원효관으로 변경되었다. 신라시대의 유명한 고승인 원효대사의 원효사상을 이어 받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진흥관(振興館) 87년 준공된 이 건물은 신라의 불교진흥에 힘썼던 진흥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문무관(文武館) 8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죽어서도 호국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고 한 신라 문무왕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문과 무를 함께 정진하자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녹야원(鹿野苑) 사슴이 뛰노는 동산이란 뜻으로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교진여등 다섯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한 곳이다. 롬바니(Lumbini 藍尼尼) 동산 부처님의 탄생지로 카필국의 왕비인 마야부인이 산월이 되어 진정인 데바다성으로 가던 도중 이 동산에서 부처님을 낳았다고 한다. (이성용 기자)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약 2005

# 당당한 세계 1등

최고의 고객만족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LG화학의 21세기 비전입니다.

正道경영을 바탕으로 고객 앞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1등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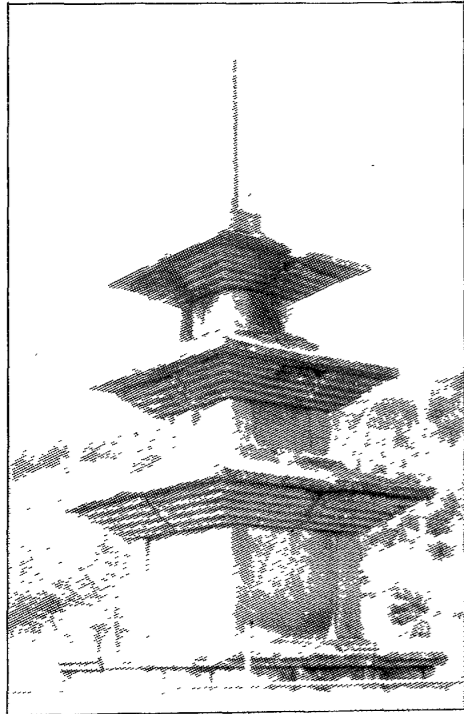
화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의 1등이 되겠습니다.

세계 일류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세계 속의 1등이 되겠습니다.

<p><b>바이오 테크</b></p> <p>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성장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과학 신물질 개발</p> <p><b>정보전자소재</b></p> <p>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개발</p> <p><b>섬유 화학</b></p> <p>섬유화학 방용수지 및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등 최첨단 고성능 신소재 개발</p> <p><b>정밀 화학</b></p> <p>무공해 농약, 생활용품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p> <p><b>생활 건강</b></p> <p>생활용품, 화장품, 약품,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p>	<p><b>LG화학</b></p> <p>LG화학 · LG석유화학 · LG실트론 · LG에라미드스그립 · LG오일스코프 · LG페트화학</p>
---	--

# 감은사탑에서 국보급 사리장치 발견

## 동·서탑 서로 짝을 이루는 신라 최고의 사리기



◇동·서 쌍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감은사탑. 사진은 37년전 해체 복원된 서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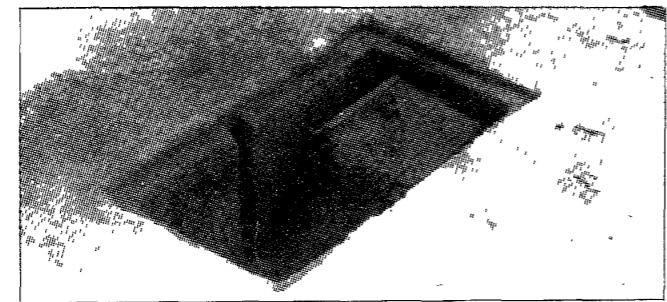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그는 감은사 답사기를 편집자 조건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원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쓰고 싶다고 말한다.

웅장하고 위대한 힘을 지닌 듯하며, 꼭꼭 닫힌 문처럼 자랑하는 감은사탑.

감은사탑은 동서 쌍탑으로서 지난달 25일, 37년전 서탑의 해체복원에 이어 동탑해체복원을 시작했다. 관계자들은 서탑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탑에서도 굉장한 사리장치가 발견될 것을 순족이며 기다리던 중 결국 국보급 사리장치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부식이 심한 관계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리장치는 길이 30cm, 가로세로 60~36cm 직사각형 사리공인에 금동으로 된 전각형 금동사리의함을 장식하고 이안에 또하나의 보합형 사리내함을, 또 이속에 수정사리병을 안치하여 사리를 안장한 3중구형으로 되어 있음을 이날 본교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표했다. 사리장치는 외감의 지붕이 자갈에 눌러 있으나 완벽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유구한 기간동안...

사리의함은 부조로 된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는데 건장하고 당당한 체구, 정교한 갑옷 형태는 세련된 극사실주의 조각이라고 한다. 또한



◇길이 30cm, 가로·세로 60x36cm의 직사각형 사리공인에 들어 있는 사천왕상이 새겨진 사리의함의 모습.

에 있다. 문무왕릉, 이갈대, 감은사터가 있는 이곳은 신라통일을 이룬 문무왕에 관한 사적지라 할 수 있다.

동일신라 문무왕은 부처의 힘을 빌어 왜구를 막겠다는 의지로 동해바다가에 절을 짓게 된다. 그러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받아 만든 절이 바로 감은사이다. 현재 그 절은 사지로 존재하며 사적 제3호로 지정돼 있다. 사찰내의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탑 감은사탑은 삼층탑으로 화강암 상하 2층, 기단위에 3층으로 축조되어 철주까지 전체높이 13m이며 우리나라 삼층석탑규모중 가장 크다. 신문왕 2년, 681년에 완성된 이 탑은 모든 목조적인 세부가 정려되어 단순한 모양으로 통일신라초기작품의 전형이며 현재 국보112호로 지정돼 있다.

이 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는 동서의 것 서로가 짝을 이루면서 서로 대비되는 최고의 걸작 사리기로써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신라의 사리기는 신기의 솜씨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명한 것이다. 동탑에서 발견된 사리의의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정교하게 장식한 3층 사리장치로서 화려하며 세련된 사리기의 형태대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리기이며, 무늬나 조각상에서 아름답고 세련된 것이어서 당대 최고의 사실적 미양식을 나타낸다. 또한 금색 찬란한 금동사리기는 일반의 진리를 상징하는 사리와 함께 영원불변의 불교사상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삼국통일의 결정적임을 알려주는 역사적의의를 간직하고 있어 통일의 의지를 크게 신앙한다.

앞으로 사리장치를 들어내게 되면 우리는 또 한번 지금의 어느 작품보다 세련된 옛 얼의 작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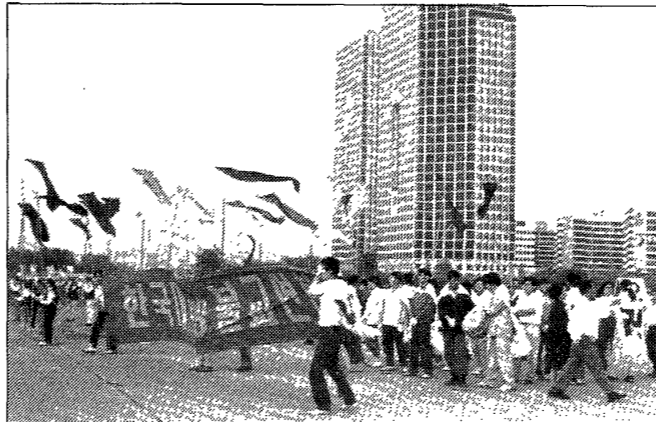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장엄구여...

### 동아리 문화위기 일몰

서울캠 사회분과

#### 사회운동·사회참여를

#### 이끌어 가는 동아리



이번 동아리 문화위기 편으로 서울캠 사회분과를 찾아가 보았다. 사회분과에는 불교학생회, 호우회, KUSA-D, M.R.A, UNSA 등이 속해 있다.

불교학생회 연합동아리 형태의 불교학생회는 매일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인 예불을 드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열어 불심을 높이고 마음을 닦는다. 또한 불교학생회는 매년 개최되는 연등축제에 직접 연등을 손수 만들어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직접 만드는 법을 강습해 주기도 한다.

호우회 호우회는 국가 유공자들의 자녀들만 구성된 동아리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서 자긍심 향상과 그들의 이익대변을 위해 창립되었다는 이 동아리는 국가 유공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소년소녀 가장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호우회가 거의 모든 학교에 존재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타 대학의 호우회 중엔 꼭 국가 유공자의 자녀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곳도 있다. 건국대와 동덕여대 등이 그러하다.

KUSA-D KUSA-D(Korean UNESCO Students Association Dongguk-univ)는 80여개학교가 이어진 KUSA 중 전국에서 2번째로 창립된 전통이 긴 연합동아리다.

4.19 학생운동 후 새로운 학생운동의 개념으로 일어난 새물결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KUSA는 '혼자모이면 독서, 둘이 모이면 대화, 셋이면 모이면 합창, 넷이 모이면 운동'이라는 새물결운동 강령도 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제주도, 그리고 다시 서울을 잇는 전국 순례 대행진, 산골어린이 초청 방송국 견학,

중앙일보 주최의 자원봉사대축제 등의 환경운동과 봉사활동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다.

M.R.A M.R.A는 절대정치,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이라는 4개의 지침을 가진 동국대덕재무장회 동아리다. 단순한 도덕운동이나 종교운동을 벗어나 근본적 인간성을 되찾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혁명을 이룩하려는 취지로 창립된 동아리이다.

UNSA UNSA(United Nations Student Association)는 인류의 기본권, 인간 존엄의 가치, 남녀평등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국제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창립된 동아리로써 전국 26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다.

매년 11월에서 12월이 정기적으로 그 해 하나의 대표적인 국제적 사건을 골라 각 나라별의 관점에서 모의 UN총회를 개최해 토론을 하며 매주 목요일엔 특정 나라에 대해 조사와 발표, 토론을 한다. 또한 여름마다 외무부 후원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들 사회분과 동아리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불교학생회는 불교이념, 호우회는 국가 유공자녀들의 자긍심 고취, KUSA는 새물결운동, M.R.A는 도덕재무장운동, UNSA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목표와 성격이 모호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변화 역시 그들에게 맞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봉사동아리의 성격과 사회동아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봉사를 통한 사회운동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김상만 기자)

### 달 하나 천 강에

#### 징고이즘적 지역주의



지난 15대 총선은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시켜 주었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후보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듯하고, 지역감정은 표를 모으는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 이제 이 나라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은 자기 고향과 지역에 대한 애환심과 자긍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징고이즘(Jingoism)에 까지 이르렀다는 느낌이 든다.

더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통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란 그저 사치에 불과하다. 오직 지역주의와 지역감정만이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다. 여당의 실정도 정치지도자의 오만함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 자체가 무의미 해졌다. 정치지도자는 깃발을 꽂고 그저 "바이 징고"(by jingo)만을 외치며 달려하기만 하면 된다.

이같은 징고이즘적 지역주의는 지리적 적리에서 생긴 것이거나 역사적 유산도 아니다. 애환심의 결과나 특정지역의 현(恨)이 표출된 것은 더구나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 암울했던 독재정치의 산물이자 장기집권이 가져온 정치적 유물이다. 독재자들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이 필요했다.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그 지역 출신 야당정치인의 존재는 집권자들로 하여금 "전라도 죽이기"의 필요성을 실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도에서 일어난 반독재투쟁과 민주화운동은 "상질이 더럽고 불만 투성이이고 배타적인 전라도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불려왔다. 그들은 정치적인 속죄양(scapegoat)이 되어야 했다. 독재자들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을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역감정이나 부추기는 상종할 수 없는 한 나라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유별난 인간들이 된 것이다. 전라도 대 반(反)전라도의 구도는 독재자와 집권자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져 왔고, 여전히 우리 정치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 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해 90%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던지는지를 이해하려 해야 한다. 그 표면적인 결과만을 탓하기에 앞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들은 결코 지역감정의 확산도 아니고 지역주의에 안달이 난 사람들도 아니다.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는 본질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로인해 혜택과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정치적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다. 계속해서 독재와 정치적 실정을 지역주의에 얽매어 용인하는 한 지역감정은 치유될 수 없고 지역주의는 타파될 수 없다.

김희오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문화단신

◇달빛 멜로디...극작가 해럴드 핀터의 'The Dumb Waiter'를 현대 한국을 무대로 새롭게 번역·각색한 작품.

비정한 도시에서 열심히 살려는 두명의 살인청부업자의 만남이 주 내용인 갭스터 드라마로 이성열씨가 연출을 맡고 장두이, 이영석씨가 출연한다.

오는 10일부터 6월10일까지, 대학로 은평나무 극장.

◇붉은 도둑 이야기...관객의 높은 호응도로 오는 19일까지 연장공연에 들어간다.

이상우 작·연출로 극단 차이무가 준비했으며 명계관, 박광정, 유오성씨가 출연한다.

즐거리는 형무소에서 갓 출감한 두명의 살인청부업자의 만남이 주 내용인 갭스터 드라마로 이성열씨가 연출을 맡고 장두이, 이영석씨가 출연한다.

##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 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 금강·고려

▲ **주사 금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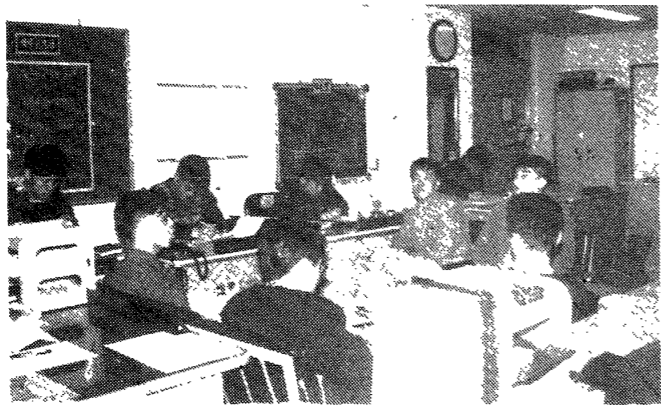
# 비대위 정·부회장에 대한 청문회 가져 총대 학생수첩 특별감사 실시

자보문건에 나타난 총학생회장(장재봉·사복4 이하 회장)과 부총학생회장(김석중·산안공4 이하 부회장)의 분열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장재봉·사복4 이하 중앙운영위)에서 인정한 기구이며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비대위는 문제성 있는 자보들을 수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자보의 부처금지를 결정하는 한편,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총학수첩과 법정대수첩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특감)를 실시했으며, 회장과 부회장측에서 나온 자보문건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이날 행정학과 학생회장의 수첩에 대한 보존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수첩 특감 내용을 요약하면 △경정서



◇지난 1일 비대위는 정·부회장 문제에 대한 질의형식 청문회를 총대의원회에서 가졌다.

잘못됐다는 부분 △중앙운영위의 검증없이 수첩을 제작한 점 △대학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점 등이었다.

또한 27일 실시한 법정대수첩과 관련된 법정대 특감 내용을 요약하면 △법정대는 업체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점 △법정대 아닌 도매

가격으로 수첩을 제작한 점 △업체측의 도덕성이 문제시 됐다는 점 △수첩문제가 회장과 부회장간의 다툼에 원인제공을 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다.

총대는 이번 수첩대에 관한 총학측과 법정대측의 특감보고를 오늘(6일)이후 자보로 통보한다.

비대위는 특감이후 이 사건에 대해 사후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대안으로 첫째, 회해할 경우 증재안과 사과문을 공개한다. 둘째, 회해되지

않으면 비대위를 해체하고 중앙운영위에서 해결하며, 결과는 이후 회장과 부회장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장과 부회장은 비대위측 입장을 따르는 데 동의하고 지난 1일 총대의원회에서 질의형식의 청문회를 가졌다.

청문회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학내에 불어진 자보문구의 진위에 초점 맞추어졌다.

청문회 내용을 요약하면 △판례 서명운동에 대해 회장은 이를후에 중지하기로 하였으나 부회장은 계속 묵인했다는 점 △부회장의 30여일 직무유기는 근거없는 내용임 △수첩제작에 서로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회의 최고간부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중이다.

비대위 위원장 전창준군은 "서로가 화해하고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나 회해가 성사되지 않을시 비대위 해체와 함께 중앙운영위에서 학생총회 개최 인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96 입학 대동제 개최 '이전까지와는 다른 희망찾기'

제13대 총학생회(회장=장재봉·사복4 이하 총학)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각 단대 및 자치기구와 연계해 '96입학대동제를 실시한다.

이번 대동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희망찾기'라는 기치아래 소비향락적으로 흘러가는 대동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로 만들어 가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동제때의 건물장소를 살펴보면 △주점 24개(학생회관~체육관 단 3개는 현형증서를 가장 많이 모은 학교에 우선배정-막걸리만 판매가능) △상가 5개(학생회관~녹야원-유동점) △분식 30개(도서관 앞) △놀이거리 및 문화거리(녹야원과 도서관사이) 등이다.

또한, 총학은 지난 3일까지 주막·막걸리·상점 신청서를 받은 결과 △상점-25개학과 △상가-6개학과 △분식-12개학과(동아리는 현재 신청받은 중)가 마감했으며 추첨은 오늘(6일) 총학생회실에서 실시한다.

문화부 연합회의를 통해 한 관계

자는 "예전과는 달리 동문회는 주점에서 제외시켰고 주점도 각 단대별로 학과에 비해 최소한 1개이상씩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가 주점을 포기한 대신 분식의 1/2의 선택권을 가져가 동아리 연계에 강화를 두도록 했다.

한편, 행사일정을 살펴보면(시간, 장소) 14일 △전야제(오후 6시, 녹야원) 15일 △개막선포(오전 10시, 교내사거리) △연립회의 초청강연회(오전 12시, 녹야원 가안) △꽃다지 공연(오후 5시, 체육관) △DKBS입학가요제(오후 8시, 녹야원) 16일 △의대 니기슈타 공연(오전 12시, 녹야원) △동아리 해방제, 고전극 연구회 탈패공연, 우금치 공연(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녹야원 또는 교내사거리-유동점) △강릉시랑공연(오후 6시, 녹야원) △상점인의 밤(오후 8시, 문무관) 17일 △전통혼례식(오후 1시, 녹야원) △백상연(오후 5시 문무관) △대동놀이 한마당(오후 9시, 교내사거리-유동점) 등이다.

## 점등식 교내일원 순회

'부처님 오신날' 불축행사인 점등식이 오는 9일 오후 7시에 교내일원에서 정각원(원장=이도업·불교학) 주관, 불교도연합회(회장=전창준·불교4, 공성규·불교4, 문도수·불교4)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악과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하여 △개회사 △삼귀의례 △잔불가 △반야심경 △현화 △불축사 △장엄등점화 △발원문 △탑돌이 및 제등행렬(녹야원서탑→원효관→상경대→도서관→동대병원→녹야원) △축원 △사홍서원 △폐회사 순으로 진행된다.

## 전기 재적생 1만1백여명

96학년도 전기재적생수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총 1만 1백 91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전기 재적생수는 △재학생-7천 6백 35명 △휴학생-2천 5백 55명 △재적자-2백 30명 등이다.

또한, 재적 사유를 살펴보면 △미등록자-21명 △휴학단료-55명 △사퇴-1백 41명 △학사정계-5명 등이다.

## 훤불예방 비상근무

훤불사교 방지목적의 일한인 교직원 비상근무가 오는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비상근무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직원 2인이 1조가 되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각 건물들 순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 시기에 지난번 만자 훤불사건과 같은 훤불사교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의도"라고 밝혔다.

## 국제관계 심포지움

법정대(학장=김진정·법학) 국제관계학과는 지난달 26-27일 학생회 주최로 UN창설 50주년기념 심포지움을 학생사에서 가졌다.

김희오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한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본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 교육실습 실시

교직 이수자들의 교육실습이 오늘(6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경주지역 및 타지역 중·고교와 유치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실습학교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93곳 2백 51명 중 △경주시 중·고교 24곳 1백 47명 △타지역 중·고교 60곳 - 89명 △유치원 9곳 - 15명 등이다.

## ◇90주년 기념사업을 진단한다

### 기념 사업 경주캠 함께 추진해야 구성원 전체 인식 전환 필요

본교는 올해가 개교 90주년이라는 해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사속에서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어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9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기획한 사업을 살펴보면 1학기 22행사, 2학기 11행사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중 경주캠퍼스와 관련된 행사는 △1학기-4·19기념 등반대회, 경주남산살리기 운동 △2학기-국악 대음악회,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등에 불과하며 등반대회는 연례행사이고 남산살리기운동의 경우는 지난 1일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1학기 경주캠의 행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와 같은 9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경주캠퍼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경주캠 구성원의 인식부족이다.

경주캠도 9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

는 점이다.

또한 남산살리기운동은 행사주관교수가 바뀌면서 결국 결실없이 행사준비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부총장을 비롯한 책임인의 충분한 공유가 안되어 지난날 취소되었다.

다음으로 경주캠 자체로 기획이 가능한 행사가 서울 중심으로만 기획된 점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작되어 배포한 홍보책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학기 기념발표, 불축연등 점등식 등은 정기적 행사임에도 제외되어 있고, 중국민속품전시회 및 건축·토목전의 경우 학과가 주관, 주최로 되어 있어 경주캠 각학과 행사를 묶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행사 주최의 대부분이 연구소 및 연구원임을 감안할 때 경주캠내 연구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선 이번 행사의 목적이 진정한 만남과 축제의 장을 만들어 동국가족 모두가 하나임을 알리는 것임을 인식하여 남은 행사를 준비해 나가야겠다.

(이현주 기자)

## 총여 28일 인성·적성검사 취업과 후원 접수 오늘부터

총여학생회(회장=박유진·철4 이하총여)는 오는 28일 진흥관 세미나실(B202)에서 오후 5시30분 모의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취업과의 후원으로 치러진 이번 검사의 접수는 오늘(6일)부터 27일까지 백상탑앞 또는 도서관앞에서 받으며 접수비는 5천원이다.

인성·적성검사와 관련해 총여측은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개별 통지되며 남녀구분없이 많은 학우

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9일 여성문제 연구모임은 '생활속의 성차별'이라는 주제로 소제목인 '딸'이라 좌송해오'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연구모임 평가에 대해 총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성모임 결과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여하무엔만 아니라 남학우에게도 많았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커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 부총장 '대학과 지역' 인터뷰 경주캠 종합평가 연기도 가능

김갑주부총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 경주신문사와의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학과 지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한편, 대학종합평가의 연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총장은 올해는 교육개혁실천의 해로서 불교 건학이념과 학교특성 교육강화에 주력할 것이고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대학내 특화된 연구소들을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체계의 경우 관광정보센터를 기치로 하여 추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는 대학원 중심교육이 아닌 교육중심의 대학임을 강조하며 현재 등록금 차등제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학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캠이 먼저 실시하게 되어 투자부분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년 연기하여 집중 투자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부총장은 현재 있는 단과대 증설은 계획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특수대학원을 부각시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 상대평가 협조공문 발송 신입생 F학점 성적표 기재

교과과(과장=조원생)는 지난 23일 성적 상대평가와 관련해 전공주임 교수 및 해당교과과 담당교수와 조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상대평가 대상교과과목과 대상자를 살펴보면 96학년도 1학기는 1학년 개설교과목의 수강생중 96학년도 신입생에 한하며, 2학기에는 금년도 개정된 신교과 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수강인원이 10명미만인 교과목은 제외된다.

한편, 96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는 F학점이 통지표와 성적표에 기재되지만, 96학년도 이전 학생들에게는 종전대로 통지표에만 기재된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번 상대평가에 대한 사항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교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F학점 기재에 대해서는 "신입생들이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 시선집중 예정된 승리(?)



◇인문인 대동제에도 불구하고 학부제로 인해 신입생들의 참석률이 적어 체육대회에선 학과체제인 사회체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우승과 준우승을 했다. (조진성 기자)

# 입석대동제

## 96 온 방 골 희망찾기

### 5. 14~17

새로운질서 미래연대  
**제13대 총학생회**

### '96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공고

1.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 '96년도 전역자
  - '90. 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 '88. 12.31일 이전에 전역한 정기하사 이상 간부
  - 41세 이상의 간부(장교/하사관)
  - 사무직(조교포함) 및 기능직 예비군
3. 교육시간: 8시간
4. 교육일정
 

5. 27(월)	5. 28(화)	5. 29(수)	5. 20(목)	5. 31(금)
경상학부, 법(아), 경 상학부(아), 법, 경영 학과, 경영(아), 법정 학부, 자연과학부	관광경영, 관경(아), 정보산업, 정산(아), 전자계산, 전산(아), 국제경제, 중문	생물, 화학, 회계, 일 문, 고미사, 미술, 전 산통계, 국문	사회체육, 국악, 국제 관계, 한문, 인문과학 부, 국사, 철학, 불교, 영문 경제학, 행정	사회복지, 산안공, 수 학교육, 생화학, 조 경, 한의학, 의학 과, 대학원, 교직원
5. 교육장소: 1대대 동천교장  
- 경주시청 동천정사에서 산업도로 건너 500m지점 (백옥사 절 뒷편)
6. 북 장: 예비군 북(전투북, 전투부,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7. 휴 대 품: 신분증, 주민등록증 지참
8. 특별유의사항
  - ◆'96년부터 다음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오니 필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 가) 자연 도착자(08:00 이후) 절대 입소 불가(위반소 엄격 통제)
  - 나) 전투복, 전투화, 전투부, 고무링, 허리띠 1가지라도 미착용자 절대 입소 불가
  - 다) '96년도 예비군 기본 교육은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시면 공고로서 교육소집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이 바랍니다.
  -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770-2071~2)로 문의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예비군 연대장



영상매체비평

왜곡된 현실속에서 기록영화는 진실을 증언한다

— 영화편



정재형

(연영과 교수·영화 평론가)

진정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극영화보다 기록영화를 보는 것이 낫다. 현실은 항상 진실을 감추고 왜곡한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첨하며 도피처를 제공하는 악마 같은 존재이다. 기록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순수한 시골뜨기나 나태나 세상은 모두 거짓이거라고 증언하며 모두가 공감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투사로 혹은 예언자로 나타난다.

지난번에 열린 제1회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는 우리 현실에선 보기 드물게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는 축제였다. 기록 영화는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 기록하지만은 않는다. 기록 영화란 진실

의 정치함을 추구한다. 기록영화는 영상을 통한 감동적인 삶의 체험을 동반하므로 그 어떤 허구를 영상물보다도 박한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게 한다. 기록영화는 삶이 객관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관객들에게 삶을 여전히 주관적으로 정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영화는 가진 자의 횡포를 고발하고 빼앗긴 자들의 분노를 형상화한다.

기록영화는 한 사회의 문화적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한다. 기록영화가 발달할수록 그 사회는 열린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기록영화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에 기록영화는 비제도권영화의 대표적 존재였다. 90년대에 들어와 기록영화는 이미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것이 기록영화의 혁명화는 그저 재미있으면 본다는 식이다. 물론 기록영화는 극영화보다 훨씬 재미있다. 극영화가 아무리 특수효과로 현실을 박진감있게 묘사해도 실제의 사건을 그대로 포착해낸 기록영화의 흥미를 따라가진 못한다.

게다가 이제 기록영화는 현실을 대체한다. 결점과 성숙과 붕괴와 상충재난이 그대로 TV에 생중계되었다. 현실은 극영화보다 더 영인 시골의 한 초등학교의 눈물겨운 부상을 담고있다. 한 초등학교의 폐교조치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커다란 실책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외로운 싸움을 관객들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해낸 것이다.

기록영화는 더 이상 종래의 영화가 아니다. 기록영화는 현실의 그림자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근로자 문화 예술제



노동자 땀방울을 짓든 작품 전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철역, 그것도 청와대와 많은 문화유산들이 인접해 있는 경복궁 역에서 제17회 근로자 문화 예술제 서울미술전시회가 이달 2일 열렸다. 근로복지공단과 KBS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노동부와 문화체육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철 경복궁 역 전시실에서 이달 7일 까지 열리며 회화 28점, 서예 59점, 수공예 28점, 사진 72점 등 총 1백 87점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출퇴근 길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천 2백만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정서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 아래 개최된지 17년째인 이 행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근로자들의 작품이라 해서 일개 모르게 평가절하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96년 기준으로 사상인원 총 313명(단체포함), 시상금액이 총 6천 7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지원도 비교적 높아졌고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미술뿐만이 아닌 음악, 문학, 연극에 걸친 폭넓은 행사분야로 종합문화예술상으로써의 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는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먼저, 근로자 문화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접수기간은 미술분야 매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문학·음악·연극분야 매년 6월 1일부터

대학가의 U·S·A 문화

미국의 로큰롤왕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섹시스타 마돈나가 유혹의 눈길로 바라본다. 시끄러운 팝음악 소리에 쿡아 멍때리고 현란한 뮤직비디오에 정신을 빼앗긴다. 주위에는 3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Marlboro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즐겁게 얘기하고 있다. 각 테이블 위에 놓여진 재떨이에는 'Made in U.S.A'라 적혀있다. 학교 주변에 생긴 어느 술집안의 풍경이다. 마치 미국의 한 술집에 들어간 듯한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에 음악, 조명등은 명백한 술집과 사뭇 다르다.

본교 주변의 상가를 살펴보면 순 외래어로 표시된 간판이 눈에 부쩍 띄고 들려오는 음악 또한 '인기가요 BEST 10'에서 들었던 노래 아니면 팝송이다. 옛날, 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에 인기를 구가했던 조흔한 소주집, 막걸리집은 찾지 못들어졌고 LOSON, BASKIN ROBIN'S, RED DOG과 같은 외국 체인점 가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화동 대학로에는 외국기업체인점 이름들 열거하기가 힘들정도로 외래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학교 주변의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개 모르게 다가오는 미국의 향기가 짙은 상징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것도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가게 주인들의 상업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다 많은 이윤을 구하기위한 그들의 노력이자 속셈인 셈이다.

운영자들이 대학생들의 욕구만에 부응해 외국풍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만 비난을 가할수 없다. 외래 문화의 빠른 확산에 비해 제도정치적 거의 없음을 뚫려 학생들이 기호에 맞는, 자급적이고 이색적인 외래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것에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외래문화의 유입은 숨쉬며 대중들을 삼포유대 관계에 뿌리를 둔 전통문화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대중매체의 영향으로부터 생겨난 다양하고 이색적인 욕구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로 대체시킨다. 대학생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졌다.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와 호기심의 유혹으로 각 개인의 욕구충족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때이다.

문화평론가 조병준씨는 "외래문화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대학가 주변의 외래문화에서의 극단적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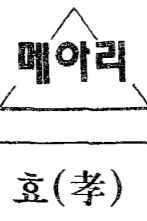
"문제는 신정주의와 폭력주의와 같은 왜곡된 외래문화가 늘어나는 것과 대학생들이 지나친 소비경향을 보이고 호기심에 못이겨 쟁쟁해지고 현혹된다는 점이다"라며 미국풍 상징이 늘어나는 것이 학생 주인공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과잉 수요에 있다고 본다.

미군기가 들어있는 옷을 입고 일제, 미제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뒹굴 수도 없고 이런 시대의 흐름을 뒤돌릴 수도 없다. 단지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외래문화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에서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넓고 깊은 주체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상홍 기자)

문화시평

▲"죽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 구한말의 일이다.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인 쇄국정책으로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와 단절되어 있던 조선에 쇄국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고 서양문화 중 하나인 단발머리가 내려졌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특히 당시 유림 선비였던 최익현은 지금도 유명한 이 말을 남겼다. ▲작년까지만해도 아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행동들 각 종 언론에 빈번하게 소개되었다. 사회에서 최고 의 지성인으로 통하는 교수에서부터 사회에서 부랑아로 취급받는 전과자에 이르기까지 생각지도 못할 반인륜적 행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범죄 아니, 현상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다.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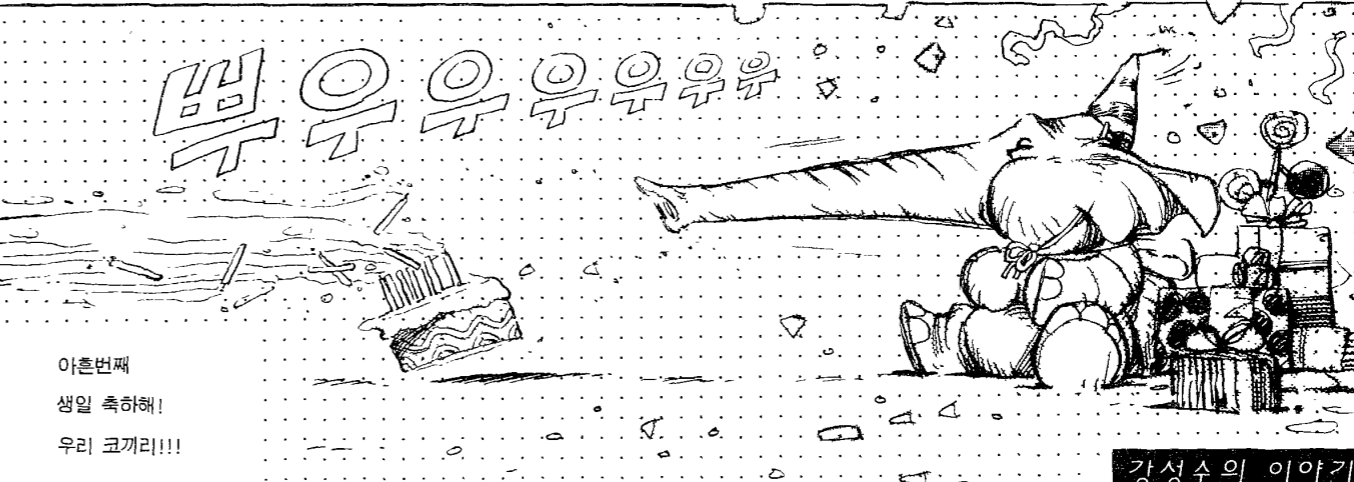
다는 얘기가. 모두 효(孝)를 중시한 말이다. ▲5월달이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말한다. 이미 '어린이 날'이 지나갔고 내일 모래면 '어버이 날'이다. 또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들 중 단연 우선은 '어버이 날'일 것이다. 푸르른 5월에,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를 살해하는 것만이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니다. 부모를 가슴속에서 짐시라도 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푸르른 5월에, '가정의 달'인 5월에 부모님을 가슴속에 새겨보자.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던 또는 부모와 함께 있던,



메이

효(孝)

자는 '말세야 말세!'라는 주년적인 소리도 하고 또다른 혹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성된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옛말에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말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뜻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부자유권(父子有權)이란 말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허물이 없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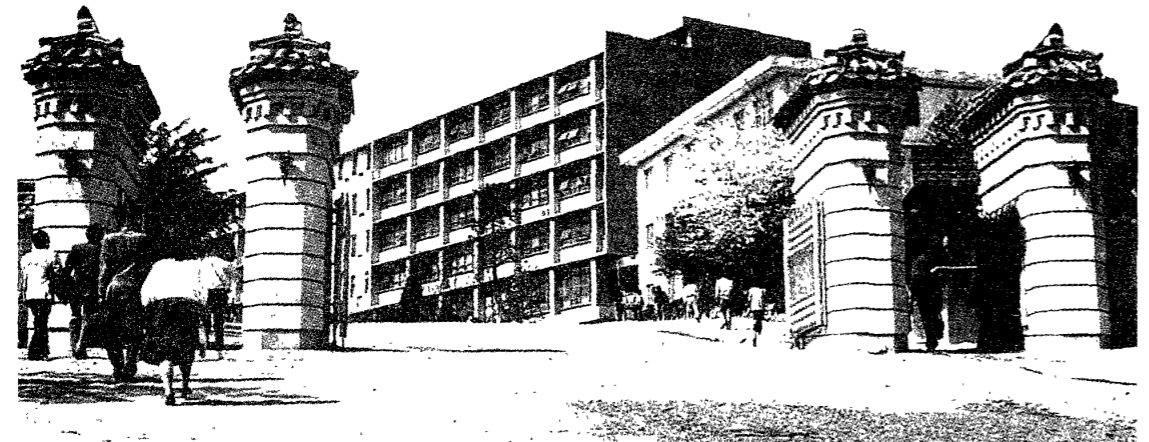
이후번에 생일 축하해! 우리 코끼리!!!

강성수의 이야기

동국대학교 교수초빙

민족사학 90년의 전통과 통일시대 21세기의 비전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동국대학교!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 신세대의 참스승을 모십니다.



1996학년도 제2학기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원 부(과)	인 공	초빙 분야
전산통계학부	전산통계학	컴퓨터수업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경찰학
경상학부	정보관리학	경영정보시스템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	초고주파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식품공학과		식품공정공학
		식품화학
국어교육과		고전 시가 및 구비문학론
역사교육과		서양사(근현대사)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교육 및 수학교육사

▶경주캠퍼스

학 부(과)	인 공	초빙 분야
통계학부		선학(통계통사상)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방법론(가족치료)
미술학부		서양화(구상)
전산정보학부	전자계산학	전산공학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
행정학부	행정학	재무행정
한 의 학 과	기 초	원전·의사학
		한방생리학
	기 초	유안재부학
		발생학(중추신경계)
		예방의학
임 상 (포 함)	상 소아	정신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2. 자격
- 가. 교육경력 10년 이상 경력사항이 없는 지로서, 당자는 명을 맡았거나 면제된 자
  -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 예술계열은 예외) 인문, 예술계열은 1951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 다. 국제적인 유망성은 또는 연구의적 보유자는 임시로 유예하며, 인명제한 없음 (SCL, SSCL, A+HCI에 등재된 국제 저명학술지에 학문적 논문은 다수 게재한 것) 라. 본교 건학이념인 삼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전공분야 및 경력사항을 추측상 기재, 명함사진 2부) ... 3부
  - 나.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지 명기) ... 3부
  - 다. 임용후 수월한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 3부
  - 라. 학위 및 경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각 1부
  - 리. 경력 및 실적증명서(이력사항과 경력사항) ... 각 1부
  - 비. 연구실적 목록(학위논문과 '92.9.1 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 ... 각 1부
  - 시. 전문의 자격증 사본(의사학계열 임용분야 지원자에 한함) ... 1부
4. 계약기간 및 직책
- 가. 1996년 5월 20일(월) ~ 5월 22일(수) 17:00까지
  -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수(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 다. 경주캠퍼스 의학과 임용분야 지원자는 동국대학교 경주부교로 접수
5. 기타
- 가.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인 남긴 번역문을 첨부
  - 나. 서류 심사후 초빙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세운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인명제한 및 임용은 전담강사 간, 조교수 선의 계약제임.
6. 학문적 임직에 현저한 분은 석좌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특별히 초빙할 수 있음

서울캠퍼스 : 150-71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710-710  
 경주캠퍼스 : 710-71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150-71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150-71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710-710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지식을 증진해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